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5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8월 9일)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세종시 포교거점 광제사, 대들보 올리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9월 9일 세종 광제사에서 대웅전 · 한국불교체험관 상량식을 거행했다. 상량식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경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백년만원력결집불사위원회 집행위원장 금곡 스님(총무부장)을 비롯해 주윤식 중앙신도회장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은 원행 스님의 친필 상량문이 쓰인 상량대를 올리는 모습.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포교가 불교중흥” 선서화로 알린다

11월 2~8일 불교중흥 위한 특별 선서화전

고승 선필 · 선화 300여 점 선봬
모든 작품 회주 자승 스님 ‘희사’
평소 “고군분투 단체 도움” 지론
어려움 겪는 교계단체 지원 사용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초대형 선서화전이 열린다.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돈관 · 덕문 · 호산 · 성행 · 현민 · 보인)는 9월 9일 동국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을 오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동국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선서화전의 주제는 ‘새로운 인연(因緣)’으로, 이는 상월선원 만행결사를 이끌고 있는 회주 자승 스님의 평소 원력과 지론이 반영된 것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소 자승 스님은 “불교 중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실천행은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임을 분명히 하며, 코로나19에도 포교 원력을 이어가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계 단체들의 지원을 강조해왔다. 일선 교계 단체들의 포교 활동들은 타종교인과 무종교인이 불교와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추진위원장 돈관 스님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한 불교계는 적극적인 방역 실천으로 사회의 모범을 보여왔지만, 이 과정에서 사찰뿐 아니라 교계 언론, 교육, 의료, 해외구호, 포교단체들은 활동에 극심한 제약을 겪으며 침체와 재정 악화의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의 원력으로 상월선원 만행결사를 이끌고 있는 회주 자승 스님이 ‘어려움에 처한 교계 단체들이 포교의 원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시회 기획 취지를 밝혔다.

‘포교가 곧 불교중흥’임을 강조하는 선서화전인 만큼 종단적인 참여가 이뤄진다. 선서화전 증명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 고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여한다.

공동봉행위원장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 호계원장 보광 · 교육원장 진우 ·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경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이 참여한다.

선서화전에는 고승들의 선필(禪筆), 선화(禪畵)부터 한국화 명인들의 작품까지 300여 점이 출품 · 전시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전시와 교계 단체 지원을 위해 자승 스님이 희사했다.

선필 대표작으로는 △진제 스님의 ‘붓다로 살자’, ‘불광보조(佛光普照)’ 등 4점 △경봉 스님의 ‘반야심경 10폭 병풍’, ‘무진장(無盡藏)’ 등 5점 △청담 스님 ‘불(佛)’ △월하 스님 ‘대방무외(大方無外)’ 등 2점 △석주 스님 ‘인중유화(忍中有和)’ 등 2점이다. 또한, 원담 · 월산 · 고산 · 지관 · 법흥 · 원명 · 성파 · 설정 스님 등 대덕 고승들의 선기가 전해지는 선필 160여 점도 선보인다.

선화는 △석정 스님의 ‘달마도’, ‘일원상’ 등 80여 점 △송담 스님의 ‘달마도’ 2점 △중광 스님 ‘우담바라’ 등 10점 △정현 스님 ‘판치생모’ 등 5점 △수안 스님 ‘참좋은인연입니다’ 등 25점을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범주 · 일장 · 원학 · 법관 · 성효 스님 등 그림을 통해 수행의 경지를 대중에 회향해 온 스님들의 선화 140여 점이 전시된다.

이밖에도 청남 오제봉 · 남농 허건 · 여초 김응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예와 한국화 작가들의 작품들도 자리를 함께해 수준 높은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일 예정이다.

공동추진위원장 호산 스님은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은 자승 스님이 소장하고 있던 선서화 및 작품들을 교계 단체 지원에 전액을 희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가시화됐다”면서 “이번 전시는 자승 스님이 희사한 선서화 등 300여 점의 작품을 기반으로 이번 전시에 뜻을 함께하는 스님들과 작가들의 작품을 기증받아 진행된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시회는 동체대비의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사부대중의 원력을 결집, 한국불교중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전법과 포교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선서화전 출품 작품은 전시에 앞서 사전예약을 통해 일부 판매가 이뤄지며, 전시 현장에서도 직접 판매될 예정이다. 전시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언론, 교육, 의료, 해외, 청소년 포교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 및 각 단체 지원에 사용된다. 지원금은 상월선원 만행결사 2주년인 11월 11일 전달될 예정이다.

〈주요작품 화보 6 · 7면〉

등록 사암도 경내지 미등록시 선거 제한

조계종 중앙종회, 10일 221회 임시회

앞으로 미등록 사설사암 뿐 아니라, 종단에 등록한 사암이라도 경내지를 사찰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 ·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종단 미등록 · 미신고 법인의 임원이나 권리인, 운영권자 등이 이를 양도 및 인계해 권리가 상실됐더라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을 받는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9월 10일 제221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제개정안을 비롯해 산중총회법과 지방종정법, 법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초심호계원장에 제주 약천사 주지 덕조 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임시회는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73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첫 안건으로 다뤄진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요건 및 제한 규정이 일부 모호해 법리해석을 달리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상정됐다. 특히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심사시 사설사암과 사찰법인, 사찰 보유법인 소속 사찰의 재산 등록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미등록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선거법은 선거권 ·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미등록 사설사암 창건주와 운영권자’만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종단에 등록한 사설사암이라도 사찰 경내지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찰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사설사암을 양도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종단 미등록 · 미신고 법인의 권리인 및 운영권자, 미등록 사찰법인 및 사찰 보유법인의 임원, 권리인, 운영권자, 관리인이 양도 및 인계의 사유로 권리가 상실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까지 제한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선거법 자격 제한
범위 확대 개정해
초심호계원장에는
덕조 스님 선출돼

이어 선거법 개정안과 연계된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산중총회법은 구성원 자격을 명시한 조항 중 미등록 사설사암 · 사찰 경내지와 관련한 부분을 선거법상 자격 제한규정에 준하도록 개정됐다.

지방종정법 개정안은 산중총회에서 재임 중인 본사주지가 후보로 등록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그 직을 정지토록 한 현행규정을, 본사 주지 1인만 등록시 본사 종무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 주지 직무를 계속 유지토록 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현행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의 자격 제한 삭제 및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법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법계법상 기본자격요건 중 70세 이상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했고, 기존 재적교구본사와 교구종회를 거쳐 서류를 제출토록 한 절차를 교구본사만을 경유토록 개정했다. 또 대종사 및 명사법계 품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2021년 9월부터 11월 정기회 시점까지 운영키로 했다. 종정감사특별위원장에는 성행 스님이 선출됐으며, 구성과 일정은 의장단과 분과위원장, 종책모임 회장 · 간사 등에 위임키로 했다.

중앙종회의원 4인을 1개 조로, 총 20개조를 구성해 종무행정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의원 전원이 감사에 참여토록 하며 감사팀 당 감사대상 사찰을 4개 사찰로 지정해 총 80개 사찰을 종정감사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였다.

이날 종회는 초심호계원장 선출의 건도 의결했다. 이는 호성스님의 사임에 의한 것으로, 신임 초심호계원장에는 덕조 스님이 선출됐다. 〈관련기사 2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백만원력결집불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함께 합니다.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검색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동참문의 정기후원
백만원력 결집불사 02-6273-0108~9

대한불교조계종

제18대 대각회 이사장에 보광 스님 취임

9월 7일 법안정사서 취임식…주지에 법수 스님 임명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무전산화 및 포교활성화 기치
용성스님 역경사업 계승 비롯해
화과원 사적지정 등 과제 내걸어

재단법인 대각회는 9월 7일 서울 목동 법안정사에서 제18대 이사장 보광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

대각회는 근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진종 용성대종사의 대각사상을 현창하는 법인으로 산하에 170여 사찰이 소속돼 있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 진행됐으며, 삼귀의례와 반야심경봉독에 이어 법안정사 · 대각정사 주지 법수 스님 임명, 제17대 이사장 직무대행 흥교 스님 이임사, 제18대 이사장 보광 스님 약력소개 및 취임사, 법안정사 주지 법수 스님 인사말 및 이사장 보광 스님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보광 스님은 1970년 동헌 스님을 계사로 불심도문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1980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대성사와 정토사 주지를 지내고 대각회 감사, 이사, 대각사상연구원장 등을 맡아 대각회에 기여했다. 제14대 종회의원, 재심호계위원, 동국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13대 호계원장으로 있다.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해 동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 일본 붓코대학 대학원에서 불교학 박사를 수료했다. 동국대 교수로 정토학 연구, 정토사를 일구며 염불신행 지도를 통한 전법포교에 매진해왔다. 용성선사연구를 비롯한 20여 종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청조근정훈장, 종정상, 포교대상 등을 수상했다.


제8대 대각회 이사장에 취임한 보광 스님.

이사장 보광 스님은 취임일성으로 법인의 독자성을 지키면서 조계종 종도로서 역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스님은 임기 동안 첫째 법인 사무 전산화, 둘째 소속분원 안정화 및 포교활성화, 셋째 직영사찰 법안정사 · 대각정사의 신도포교 신행활성화 넷째 용성 스님 역경 및 화과원의 사적지정 등 4가지 분야에 매진할 것임을 덧붙였다.

보광 스님은 "대각회는 독립운동민족대표 33인 중 불교대표로 참여하였고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한 한국불교 대선지식이었던 진종 용성조사님의 유업을 계승하고 현창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며 "1969년 9월11일 동헌 완규 대종사님과 불심도문 큰스님이 중심이 되고, 고암, 자운, 성철, 광덕 등 큰스님들의 원력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18대 이사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지금까지 수행승이면서 동시에 불교학자로서 용성 스님 문손으로 용성 스님 연구를 해왔고, 조사님의 유물을 근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왔다"며 "역대 이사장 스님들과 흥교 큰스님 뒤를 이어 법인 발전과 용성 스님 유업을 현창할 것이며, 법인 독자성을 지키며 조계종 종도로서의 역할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이날 행사에서는 법안정사 주지 법수 스님 임명이 이뤄졌다. 주지 법수 스님은 "이사장 보광 스님의 뜻을 받들어 법안정사가 도심포교당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중이 한마음으로 도심포교도량으로 거듭나도록 하자"고 말했다.

취임식 법문으로 보광 스님은 "대각회 중심도량인 법안정사가 도심사찰로 포교와 신행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각회 직영사찰에 처음으로 주지대행인 총대를 두고 적극적인 활동에 매진하고자 한다"며 "주지 법수 스님과 신도들이 화합하여 미래포교와 용성 스님 선양사업 등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대선 앞두고 '불교정책기획단' 구성

9월 3일 교구본사 주지회의서
기획실 종무 보고로 계획 밝혀
각 정당 제안할 불교정책 공의
전통사찰 전기요금체계 개선도

조계종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교 전통문화 정책의 개선점을 공약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공의를 모은다. 9월 중 '대통령선거 불교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의제를 논의, 향후 정당별 대선 후보자 초청 공청회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기획실장 삼혜)은 9월 3일 의성 고운사에서 진행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가칭)20대 대통령선거 불교정책기획단'은 대선 후보자들의 불교 전통문화 관련 공약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 · 운영된다.

기획단은 총무원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교구본사 주지 1~2인, 중앙종회의원 1~2인, 총무원 총무부장 · 재무부장 · 문화부장 · 사회부장 · 교육부장 · 포교부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분야별 의제 설정 후에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10인 가량의 정책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올 9월 중 기획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책 기조 및 분야별 의제를 설정해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제에 따른 공약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종단 내 의견을 수렴해 불교계 대응전략에 대한 세미나도 계획 중이며, 연내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정당별 대선 후보자 초청 공청회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획실은 각 교구본사에 전통문화와 관련한 공약 제안을 당부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관한 정책이 핵심인 만큼, 공약은 교구 중심이 아니라 불교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날 기획실은 전통사찰 전기요금 체계 변경을 위한 보고도 진행했다. 이는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유사찰이 공익적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현행 전기요금 체계상 실제 사용전력보다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기획실측은 "전통사찰의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대정부 현안과제로 삼고 정부에 개선을 요청하고 있지만, 다른 공익적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가법으로 지정 · 관리하는 전통사찰의 공공적 ·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자 결국 전통문화 계승발전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는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실은 국가지정문화재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될 수 있도록, 이 사안을 대선 정책과제로 포함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유사찰의 전기요금 현황을 파악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기 교구본사주지회의는 11월 중 동화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조선왕조실록 · 의궤, 환지본처해야"

조계종 종회, 9월 10일 결의문 채택

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의 환지본처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9월 10일 제211회 임시회를 열고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 문화재제자리 찾기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는 월정사 등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환수됐지만, 정부는 장소의 적정성과 보관연구 등의 이유로 원소장처인 월정사로의 이관을 사실상 거부하는 상황이다. 특히 월정사는 해당 문화재를 위해 왕조실록 · 의궤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충분한 여건을 갖췄지만 여전히 환지본처는 요원하다.

이에 중앙종회는 결의문을 통해 "서울 고궁박물관이 소장 중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는 오대산 월정사가 목숨 걸고 수호하던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제자리를 잃고 타향살이 하는 이 문화재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로 침탈된 치욕적인 역사의 흔적으로, 2006년 민간단체 등의 노력으로 고국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환지본처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은 문화재가 국유문화재가 됐기 때문에 지역에 돌려보내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리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지역의 문화재를 서울의 박물관 수장고와 야외정원에 켜켜이 쌓아놓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참담할 뿐"이라고 한탄했다.

종회는 "항온항습 기능을 갖춘 장소의 부재를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상 평창 월정사 인근에 최신 시설을 갖춘 박물관이 문을 연 지금도 제자리로 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빛을 발한다"며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는 환지본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포교원, 제33회 포교대상 후보자 공모

계층 · 직능 · 문화 등 6개 분야
10월 15일까지 접수…11월 시상

한해 동안 포교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발전에 공을 세운 이들에게 수여되는 포교대상이 후보자를 공모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10월 15일까지 제33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추천분야는 계층포교(아동, 청소년, 대학생, 청장년, 노인 등), 직능포교(입법, 사법, 행정, 교육, 군, 경찰, 직장직능 등), 문화체육포교(미술, 성보, 건축,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문학, 학술, 연예, 스포츠 등), 사회포교(환경, 통일, 국제, 인권, 장애인, 복지, 여성, 노동, 다문화 등), 대중매체포교(방송, 신문, 잡지, 출판, 인터넷, 모바일 등), 지역포교(신도 교육 및 조직 운영,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6개 분야다.

추천대상은 각 분야서 3년 이상 활동하면서 포교 공로가 현저한 스님 또는 재가불자, 사찰, 단체로 대상 후보자는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수상자는 5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사항으로 추천될 수 없으며 종단에서 수여하는 일반표창 수상자는 1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될 수 없다.

교구본사 주지스님이나 종단 소속 포교단체 대표자, 종단 등록 신도단체 대표자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공모에 참가하는 이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양식을 받아 추천권자의 추천서, 후보자 포교활동 공적서,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시 종단 부여 자격증 또는 품수증 사본, 종단기관 재직증명서와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재가자는 신도증 사본과 당해 연도 교무금납부영수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적에 따라 대상(종정상)과 공로상(총무원장상), 원력상(포교원장상)으로 나눠 시상하며, 시상식은 11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02)2011-1904

노덕현 기자



코로나에도 '추석차례'는 사찰에서

차례 접수 활발, 직계만 모이며 선호도 높아져

사찰 마당 활용, 방역준수
회차 늘려 회당 인원 줄여
예년비해 참가 증가사찰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은사에 다니는 직장인 김 모씨. 올해 추석에는 사찰에서 차례를 지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직계가족만 겨우 모일수 있게 되면서 차례를 집에서 지내기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인한 차례상차림 부담도 사찰 차례를 신청하는 데 한몫했다.

김 모씨의 경우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속에 사찰 차례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 눈길을 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9월 8일 "추석 당일인 21일 대웅전과 지장전, 영각, 선불당, 미륵전, 전통문화체험관2관, 판전, 영산전 등서 진행되는 단독차례 신청 대부분이 접수마감됐다"고 밝혔다. 21일까지 접수받는 합동차례 또한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차례는 오전 8시와 10시, 오후 2시 세차례에 나눠 법왕루에서 진행된다.

장영욱 봉은사 종무실장은 "단독차례의 경우 오히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다. 코로나 전에는 명절 여행 등으로 사찰 차례가 증가했다면, 이번 추석 차례는 친척모임 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례라도 지내기 위해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도 9월 21일 오전 8시와 오전 11시, 오후 1시에 세차례에 걸쳐 대웅전에서 합동차례를 진행하는 가운데, 9월 9일까지 접수된 인원이 전년 대비 약 100여 명이 많다고 밝혔다.

조계사 측은 "합동차례의 경우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순서대로 대웅전 내에서 차례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다"며 "집안 실내보다 야외인 사찰 경내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화계사(주지 수암)도 9월 21일 차례를 진행한다. 화계사는 불교식 다례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례와 차례의 차이점은 술과 고기 등이 올라가지 않고, 채식과 차를 중심으로 상이 차려지며, 상의 구성도 유교식과 다르게 구성된다. 화계사는 여기에 지난 설부터 합동과 단독으로 나누어 각 전각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게 배려했다. 이번 합동다례는 오전 8시, 오전 10시, 오후 2시의 3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사찰에서 진행되는 추석 합동차례 모습.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법원)도 9월 21일 오전 10시 2층 큰법당에서 추석합동차례를 진행한다. 매년 진행해 오던 새터민 합동차례는 올해는 진행하지 않는다. 국제선센터는 큰법당의 경우 수용인원이 500명 규모로 10%인 50명이 함께 차례를 지낼 수 있다. 국제선센터 또한 코로나19에도 차례객들이 줄지 않았다.

국제선센터 관계자는 "사찰 차례의 경우 매년 사찰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계속 지내시는 것이 특징"이라며 "점점 차례객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행사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도 오전 5시와 7시, 10시의 3부로 나누어 합동차례를 진행한다. 이번 합동차례는 오전 5시 차례와 7시 차례에 10시 차례를 추가했다. 대신 거리두기를 위해 가족 대표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효행본찰인 수원 용주사를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 또한 9월 21일 합동차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교식 차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코로나19로 명절 모임이나 행사가 위축되고 있지만 조상선망의 마음은 그대로 일 것"이라며 "사찰에 면밀하게 대응해 이러한 대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보다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동곡학원 인수합병한다

9일 법인이사회서 의결
교육부 인가 거쳐 귀속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가 지역 명문 종립사학인 동곡학원을 인수합병키로 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9월 9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39차 이사회를 열고 학교법인 동곡학원 인수합병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가 설립한 동곡학원은 지난 2010년 경북 영천 선화여고를 인수해 운영해 왔다. 현재 총 15학급 32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현재까지 6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지역 명문 학교다.

앞서 동곡학원은 지난 8월 6일 이사회를 열고 선화여고를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목적이 같고, 중등교육기관의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학교법인 동국대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의결한 바 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이자 동곡학원 前 이사장 돈관 스님은 "동곡학원이 선화여고를 인수해 운영한 것이 10년이 됐다. 더 큰 발전을 위해 인수합병에 동의해준 동국대 이사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선화여고가 경북 영천의 명문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국대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양 법인은 합병약정을 체결하고 교육부 인사, 등기 등의 과정을 거쳐 동곡학원은 동국대로 귀속된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의 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3주기 평가에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는 높은 평가를 받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사장 성우 스님은 "교육부 평가에서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평가 중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좋은 부분은 더 갈고 닦아 학교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민추본 '평화통일도량', 38곳 돌파

9월 6일 12곳 단체협약식
3월 말 첫 체결 이후 쾌거



한반도 평화통일에 힘을 모으는 사찰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추진하는 '108 평화통일도량' 사업이 올 3월 1호 사찰협약에 이어 반년 만에 38곳을 돌파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는 9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평화통일도량 제16~38호 단체 협약식' 을 진행했다.〈사진〉 평화통일도량은 민추본의 한반도 평화통일 사업을 후원하고 사찰 신도와 불자들에게 그 취지를 알리는 토대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본부장 월우 스님과 평화통일도량 협약 사찰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협약사찰은 진도 쌍계사와 합천 백련암, 부산 고심정사, 하남 정심사, 세종 황룡사, 수원 봉녕사, 남양주 천보사, 칠곡 송림사, 안동 광흥사, 안동 연미사 등 12개 사찰이 협약에 동참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월우 스님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분야에서 문화를 교류하는 민추본의 역할은 하루속히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은 민추본이 추진했다기 보다는 각 교구 말사 주지스님 한 분 한 분의 원력이 모인 성과다. 하루속히 평화가 빨리 찾아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발원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평화통일도량 주지스님들의 다짐도 이어졌다. 쌍계사 주지 정상 스님은 "한반도에 암흑이 이어지는 것은 공동체의 불행이기에 우리 민족이 함께하는 것에 희망을 두고 미력하나마 평화통일도량으로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도 "민추본이 종단 활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전국 사찰들도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뜻 깊다"고 말했으며, 태허 스님은 "사찰에 방문하는 불자들과 함께 남북 평화통일의 흐름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사업부(사업부장 주혜)는 협약식에 참석한 평화통일도량 주지 스님들께 〈불교성전〉과 염주로 이뤄진 선물세트를 공양했다.

송지희 기자

오체투지로 모아낸 평등 염원, 국회로

조계종사노위, 9월10일 회향
국회의사당에서 기자 회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9월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지막 오체투지 순례일정을 진행했다.

평등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 염원을 모아내기 위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오체투지 순례가 국회의사당을 끝으로 회향했다. 오체투지는 회향했지만 그동안 모아낸 염원들을 각 당과 국회에 전달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9월 10일 마지막 오체투지 순례일정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거치며 당대표들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하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안 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의당 당사에서 당대표단과 합류한 스님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체투지를 회향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국민 염원을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정의당 심상정 · 정혜영 의원도 국회로 향한 여정에 힘을 보탰다.

사노위에 따르면 오체투지 순례가 이어지는 동안 스님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체감했다. 박수로 환영하는 사람들, 음료수를 놓고 가는 슈퍼마켓 사장님을 만나기도 했다. 인천에서 왔다는 한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는 울먹이며 법 제정을 호소했으며, 발달장애인들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외쳤다. 넓은 교차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차를 막아 서며 오체투지에 나선 스님들을 호위해 주기도 했다.

위원장 지몽 스님은 "이분들의 희망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에 대한 법적 차별을 해결해 평화롭게 살자는 평범한 진리에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에 얽매이지 말고 책무와 양심에 따라서 입법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오체투지' 는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출발해 열흘간 진행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해 노동자부터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난민 등 다양한 정체성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 158곳이 연대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법화종 종정·총무원장 서리 자격 논란 종식

법원, 법화종 종정 도선 스님 자격 인정
총무원장 서리 혜문스님 '직무대행자'로

9월3일 4건의 소송 관련 결정
성운·정호스님이 종정스님에
제기한 직무정지는 모두 기각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의
직무 방해금지는 일부 인용
법화종 논란 완전히 정리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법화종 종정 도선 스님과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에 대한 자격 논란이 완전히 종식됐다. 법원은 도선 스님과 혜문 스님에 대해 제기된 직무정지가처분을 모두 기각했을 뿐 아니라, 前 총무원장 서리 거암 스님의 (사)대한불교법화종 대표이사 자격을 중지하고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을 '직무대행자'로 인정했다. 법화종 종정과 총무원장 자격 여부가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됨에 따라, 그동안 종단 내부적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여러 논란도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9월 3일 법화종 현안과 관련한 4건의 가처분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그 결과 법원은 종정 도선 스님에 대해 중앙종회의원 정호 스님과 비상대책위원장 성운 스님이 각각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두 건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두 건 모두 가처분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정호 스님과 성운 스님은 종정 도선 스님이 "종정 추대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중승적으로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1년 1월 19일자 회의록에 따르면 종정 추대위가 만장일치로 도선 스님을 종정으로 추대한 사실이 소명되고 △종정 추대 당시 도선 스님이 이중승적으로 징계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종헌종법 상 "타종단의 법계를 향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종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학력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종정의 자격요건을 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은 두 스님이 "종정추대위원들이 총무원장에 의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대위원으로 볼 수 없다"고 절차상 하자를 주장한 데 대해, "종헌종법상 종정 추대위는 당연직·선출직 추대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취지만 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정호·성운 스님)의 주장과 같이 총무원장에 의해 임명돼야만 지위를 취득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성운 스님이 "중앙종회가 2021년 3월 26일 도선 스님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했기 때문에 종정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취지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종헌종법상 중앙종회가 종단의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정의 지위를 박탈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종정 도선 스님을 둘러싼 모든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 따라서 종정 스님이 총무원장 서리로 임명한 혜문 스님에 대한 자격 논란도 종식됐다는 점에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정호 스님이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정호 스님에게 부담토록 했다.

해당 가처분에서 정호 스님은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을 임명한 종정 스님의 자격에 문제가 있고 혜문 스님 역시 경주교구 종무원장직을 맡고 있어 부적절하다"며 "특히 혜문 스님이 총무원장 서리라고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해산을 명하는 등의 행위로 종단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종정 도선 스님의 자격을 인정하는 동시에 "혜문 스님이 종단의 임원인 이상 총무원장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경주교구 종무원장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총무원장 서리로 지명될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종헌종법상 설치 근거가 있다거나 중앙종회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현재 성운 스님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법적 정당성을 부인했다.

같은 맥락에서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의 이사 직무대행자로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을 선임했다.

법원은 혜문 스님과 법화종이 전 총무원장 서리 거암 스님과 안정사 조실 승헌 스님, 송원 스님(정창수), 신유 스님(거암 스님의 사서실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거암 스님과 신유 스님의 (사)대한불교법화종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또 직무집행 정지 기간 동안 혜문 스님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이밖에 혜문 스님이 제기한 구체적인 직무방해에 대해서는 "채무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들이 종단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는 동안 집무시설 등을 이용해 종단 또는 임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청사에 대한 점거가 중단됐고 혜문 스님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는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이 현재 총무원 청사에서 종무를 수행하는 만큼, 직무방해의 요인이 해소됐다고 판단한 동시에, 앞서 거암 스님과 승헌 스님 등이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총무원 청사를 점거했던 행위가 부당했음을 인정하는 결정으로 유의미하다.

이에 대해 총무원측은 "그동안 종단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해종세력이 종도의 혼란을 야기해 어렵고 참담한 심경이었다"며 "이제라도 종정 도선 스님과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의 자격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된 만큼, 종단 정상화를 위해 후속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랜 내홍으로 고통받아 온 만큼, 이제라도 법화종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헌종법과 원칙이 바로서야 한다"며 "그간 내부적으로 발생했던 행위들에 대한 부당성을 되돌리기 위해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종도들이 제대로 종단의 현실을 보고 애종심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총무원은 9월 8일 종단 정상화를 위한 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원로회의와 전국교구원장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후속 조치 및 종단 향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생명나눔, 혈액암 환자에게 치료비 전달

9월 9일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
김흥국씨 환자대리인에게 전달



생명나눔홍보대사 김흥국 씨가 김정은 복지사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 9일 BBS불교방송에서 환자치료비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인 가수 김흥국 씨가 최수환 환자를 대신하여 참석한 고려대안암병원 김정은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

9월 치료비 지원 선정환자는 최수환(가명/남/55세/혈액암) 환자이다. 최수환 씨는 2013년에 한차례 혈액암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으나 2020년에 재발 판정을 받아 항암치료 중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대기 중이다.

최수환 씨는 고등학생 외동딸을 포함한 3인 가족의 가장이며 대리운전을 하면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매달 발행하는 〈행복한 빈손〉 소식지를 통해 환자의 사연을 알렸고 치료비 300만 원을 모금하여 전달했다.

가수 김흥국 씨는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트롯 투표-리매치W 앱을 통해 시즌3를 마치고 미스트롯2 팬들이 트로트 가수 이름으로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다시 한번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3에서 미스트롯2 팬들이 올린 트로트 가수는 '임서원', '김다현', '전유진'이며 후원금은 총 100만 원이다.

트롯 투표-리매치W 앱은 미스트롯2에 출연했던 가수들을 팬들이 투표하고 응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앱이다. 팬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일정 득표수 이상이 되었을 때(100만 표 당 10만 원) 시즌이 종료되고 결과에 따라 투표 받은 가수의 이름으로 후원하는 시스템이다.

트롯 투표-리매치W 측은 "이번 시즌3에서 임서원은 시즌2에 이어서 시즌3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2관왕을 달성했으며 김다현은 지난 시즌 3위에서 2위로 올라왔고 시즌1 우승자인 전유진은 3위에 랭크되었다"면서 "가수 응원도 하며 선행까지 할 수 있는 '트롯 투표 - 리매치W'의 새로운 시즌4는 12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트롯 투표-리매치W 기부금과 같이 이번 기부금도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예매율 80%, 11개 작품 매진 성과

제1회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 폐막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 주최하며 동국대 영상대학원이 주관하는 '2021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OIBFF)'가 8월 30일 폐막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동아시아 최대 규모인 이번 영화제는 연꽃, 라일락, 동백, 수선화와 단편 컬렉션, 특별 프로그램- 포커스 온 미얀마 섹션별로 총 15개국 62편의 영화를 전편 무료로 상영했다.

영화제 홍보팀에 따르면 개막일을 포함한 지난 5일 동안 극장 상영은 누적 관객 1800여 명, 주요영화 사전 예매율 80%를 기록했으며, '파필리오의 부다' 외 11개 작품이 매진되는 등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불자들과 일반 관객들로부터 큰 관심과 성원을 받았다.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공연장 수용인원의 50%만 입장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얻은 값진 성과다.


영화제에서 티켓팅하는 불자들.

차승재 집행위원장은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영화제 개최 기준에 맞추어 정기적 개최를 통해 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고품격 영화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최측은 "영화제는 막을 내렸지만, 추후 전국 지역순회상영회, 청소년 영화캠프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영화제의 분위기를 이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출시!!
FDA 등록
ANTI-BACTERIAL · DEODORIZATION · 항균&소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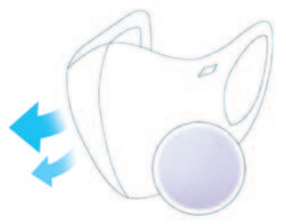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청량한 색상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5색에 연꽃문양이 아름답게 인쇄된 여름용 Cool~ 마스크

자외선 차단 및 빠른 건조기능으로 야외활동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기존제품과 다른점
❶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
❷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음
❸ 냉감(시원함 정도)이 우수하여 무더운 날씨에 적합

※ 색상별로 5개 1셋트 27,500원 (개당 5,500원) / 배송비별도
※ 색상별로100개 주문시 350,000원 (개당 3,500원)
※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주문제작상품으로 5~7일정도 소요됩니다.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사찰음식체험관 법사 여일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9월7일 강동구보건소에 전달할 사찰간식 도시락을 포장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9월 7일 강동구 보건소에 사찰간식 도시락 250인분을 전달했다. 사진은 강동구 보건소에 전달된 사찰간식 도시락 앞에서 문화사업단과 강동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단장 원경스님이 오은진 강동구 보건소 주임에게 도시락을 전달한다.



사찰음식체험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다.

"방역에 지친 그대, 사찰간식 먹고 힘내요"

문화사업단, 사찰간식 도시락 나눔 진행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여기에 오렌지가 빠졌네요. 과일 4종은 빠짐없이 채워져야 해요."

"오미자차 수량은 빠짐없이 챙겼나요."

9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 한국사찰음식체험관 조리장은 분주했다. 조리 담당 직원부터 자원봉사자들은 과일을 썰고 도시락에 담아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이 만든 도시락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된 의료 인력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찰 간식들이었다.

사찰 간식 도시락은 과일 4종(사과 · 오렌지 · 포도 · 방울토마토)과 호두강정, 오미자차로 구성됐다. 호두강정의 경우 지난해 문화사업단에서 진행했던 사찰음식 도시락 나눔 행사에서 의료진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제작에 손이 많이 가서 문화사업단에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사찰음식 · 간식 도시락 나눔 행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문화사업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에는 의료인, 방역관계자, 소외계층 등 1만 6000명에게 도시락과 간식이 전달됐다. 또한, 사찰음식 특화 사찰 등과 연계해 지역 병원과 소방서, 보건소 등에 나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이는 올해에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사연따라 찾아가는 사찰음식 온라인 수기 모집' 도 인기다. 해당 사업은 준비한 수량이 거의 소진될 만큼 많은 사연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도시락 및 간식 수량을 늘려 더 많은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일선 병원과 보건소 등을 위한 사찰간식 도시락 나눔 행사도 문화사업단의 사회 공익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9월 3일에는 서울 서남병원에 600개의 사찰간식 도시락이 전달됐으며, 7일 강동구 보건소에 250개의 사찰간식 도시락이 전해졌다. 9일에는 영등포구 보건소와 종로구 보건소에 각각 300개, 215개의 사찰간식 도시락이 배포됐다.

이번 사찰간식 도시락은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도 전달됐다. 불교계 노숙인 지원단체인 (사)다나를 통해 도시락 600개가 전해졌으며, 노숙인들의 도시락에는 과일 대신 떡과 양갱 등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내용물로 구성됐다.

양진수 한국사찰음식체험관 운영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 ·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 방역 관계자들이 사찰 간식을 드시며 조금이나마 피로를 푸시라고 과일을 위주로 한 도시락을 준비했다"면서 "병원과 보건소, 노숙인 지원단체 등 총 6곳에 2465인분의 도시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호두강정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가장 반응이 좋다. 단장 원경 스님께서 아직 날씨가 더우니 시원한 음료를 준비할 것을 제안해 청량감 있는 오미자차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병원 · 보건소 · 노숙인 단체에
2천5백인분 간식 도시락 전달
과일과 호두강정 등으로 구성
1주일 전에 준비… 정성 '듬뿍'

9월7일 강동구 보건소에 전달
"모두 힘든 시기 찾아줘 감사"



전달된 사찰간식 도시락 구성품. 상큼한 과일 4종과 호응이 좋았던 호두강정, 오미자차로 구성됐다.

최소영 한국사찰음식체험관 행정관은 " '앉아서 느긋하게 식사를 할 시간도 많지 않다' 는 것이 일선 관계자들의 전언이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영양소도 섭취할 수 있는 과일 중심으로 도시락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최근 의료 · 방역 관계자들에 대한 관심이 준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문화사업단은 병원, 보건소 의료진 · 방역 관계자와 일선 행정직, 청소노동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를 챙기려고 노력한다. 도시락 수량도 항상 넉넉하게 맞춰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사찰 간식 도시락을 준비하는 조리팀과 자원봉사자들은 일선 의료진들이 간식을 먹고 잠시 고단함을 잊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했다.

한국사찰음식체험관 법사 여일 스님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유행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특히 의료진들이 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상큼한 과일과 시원한 오미자차를 드시며 잠시나마 고됨을 잊고 웃음을 지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송남춘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간사는 "정성으로 준비한 사찰간식 도시락을 먹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한다"면서 "하루 빨리 세상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장작업이 완료된 사찰간식 도시락들은 강동구 보건소에 전해졌다. 도시락을 전달받은 방역 관계자들은 불교계의 자비나눔 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은진 강동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주임은 "코로나19로 많은 국민과 의료진, 방역관계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마음 내주신 도시락을 먹고 조금 더 힘을 내도록 하겠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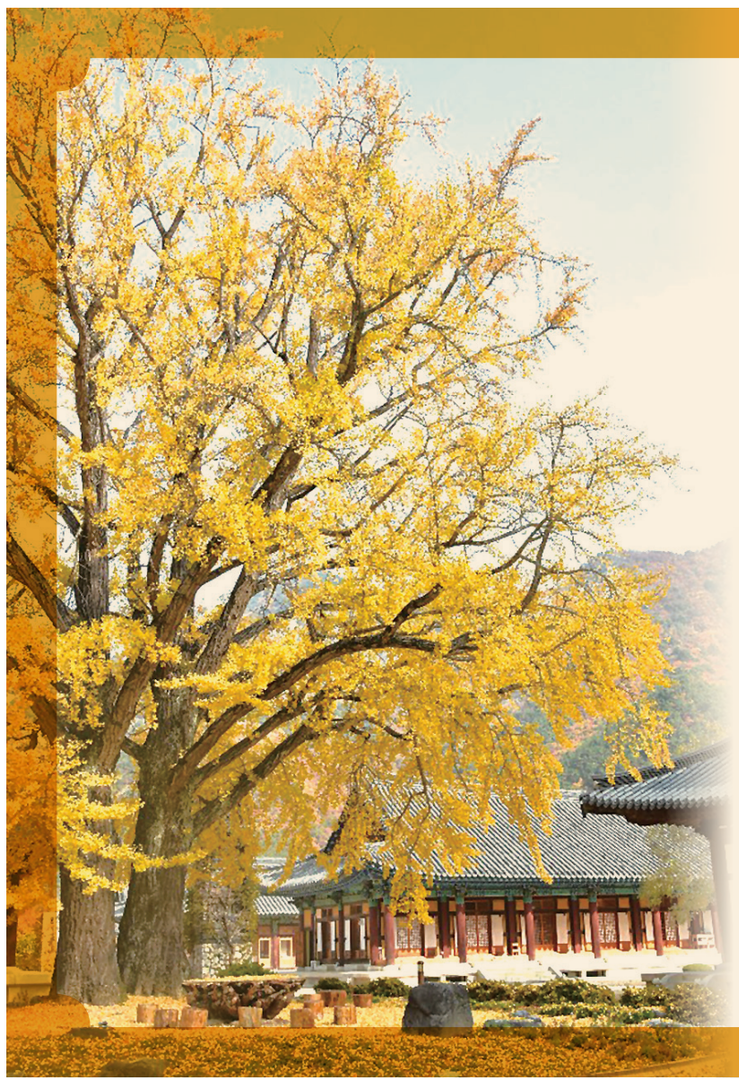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방역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언제든 사찰음식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원경 스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도시락을 드실 수 있게 음식이 아닌 간식으로 준비했다. 더 필요한 것을 말씀주시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산사는 종교를 떠나 지치고 힘든 국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항상 문을 열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우울한 감정을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으로 치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경 스님은 문화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실제 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 발병 직후인 지난해부터 의료인과 방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와 소상공인 · 문화예술인을 위한 '쓰담쓰담 템플스테이' 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들 대상으로 1박2일 템플스테이의 참가비 30%를 할인하는 인센티브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원경 스님은 "내년에 코로나19의 극복이 이뤄져도 일상으로의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국민들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사회 공헌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나눔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 ·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문사승가대학 동문들께 알립니다

제50차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취소 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소중한 추억이 서린 우리들의 운문도량에서 올해는 꼭 선·후배스님들을 모시고 작년에 하지 못한 총동문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선·후배스님들을 가을 향 가득한 도량으로 초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닌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여야 할 거 같습니다. 올해도 아쉽게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운문인들은
항상 함께 하고 있으니 운문도량에 함께할 그날을 기약하며 선·후배스님들 모두 건강하게 각자의 자리를 빛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금 신청은 운문사로, 동문회비 납부 관련은 동문회 재무스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임 총동문회 회장 **지호스님** (010-8997-3992)
- 신임 총동문회 총무 **대훈스님** (010-3105-9878)
- 신임 총동문회 재무 **지산스님** (010-3813-3526)
- 동문회 계좌번호 : 농협 351-0819-3700-43 (운문사)
- 동 문 회 비 관련 문의 : 총동문회 재무 지산스님 (010-3813-3526)
- 장학금신청 관련 문의 : 운문사 종무소 (054-372-8800, 054-370-7100)

불기2565(2021)년 9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운아 합장

미리보는
새로운 인연(因緣)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사화전

禪書畵

근현대 고승 선필·선화 '한자리'



①



②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계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메머드급 선서화전이 열린다.

오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동국대에서 '새로운 인연(因緣)'을 주제로 열리는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은 근현대 고승들의 선필(禪筆), 선화(禪畵)부터 한국화 명인들의 작품까지 300여 점이 출품·전시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전시와 교계 단체 지원을 위해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희사했다.

선서화전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를 비롯해 경봉·월하·청담·석주·원담 스님 등 선지식의 선필 160여 점과 석정·송담·중광·정현·수안 스님 등의 선화 140여 점이 전시된다.

교계 단체 지원과 불교 중흥을 위해 열리는 선서화전의 주요 작품들을 독자들에게 먼저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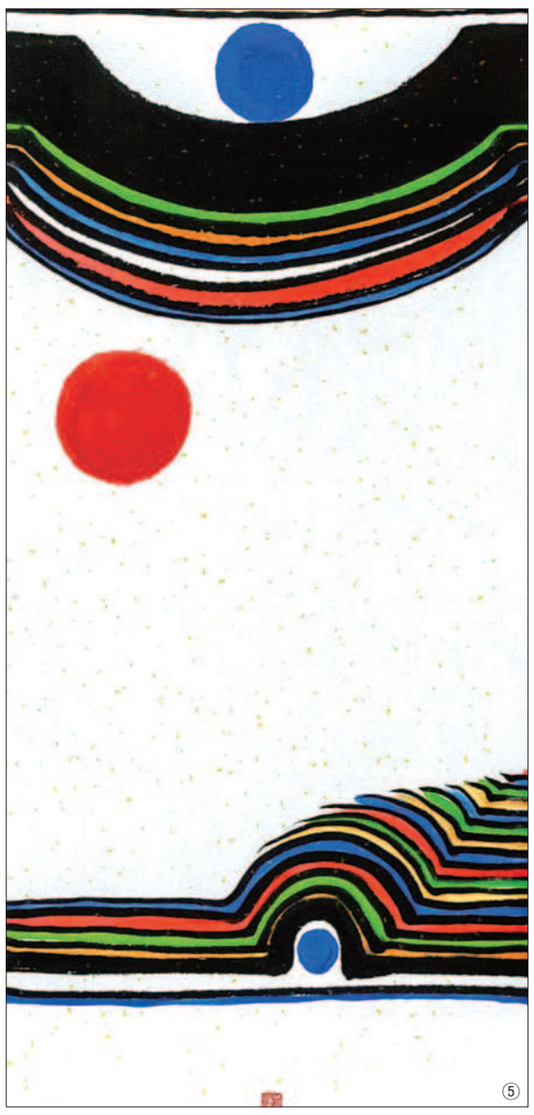
〈편집자 주〉



③



④


⑤


⑥



⑦



⑧

① 진제 스님, 붓다로 살자, 127×38.5cm
② 청담 스님, 불(佛), 58×115cm
③ 경봉 스님, 무진장(無盡藏), 135×70cm
④ 경봉 스님, 반야심경 10폭 병풍
⑤ 성효 스님, 선화, 33×70cm
⑥ 정현 스님, 판치생모, 32×32cm
⑦ 수안 스님, 선화, 143×79cm
⑧ 중광 스님, 선화, 54×78.5cm

포교 통한 '불교중흥' 원력 발원

미리보는
새로운 인연(因緣)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사화전

禪書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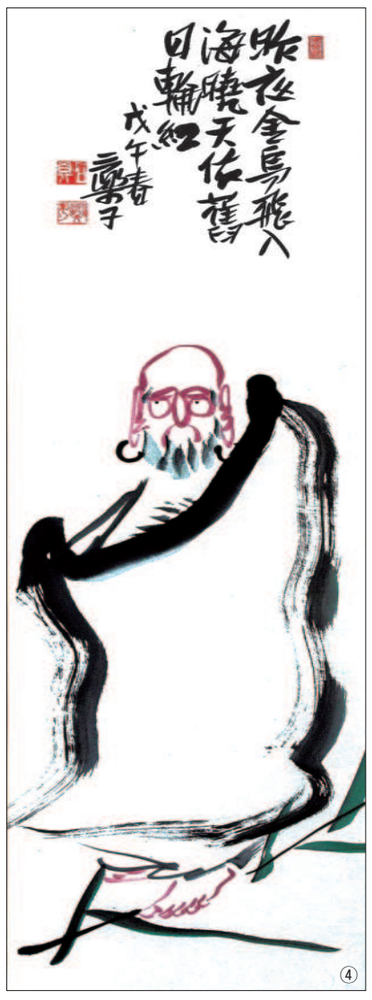
①

"불교 중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실천행은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

–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②


④


⑤


⑥



⑦



③



⑧

① 진제 스님, 불광보조(佛光普照), 142×40cm
② 월산 스님, 불(佛), 30×125cm
③ 고산 스님, 시심마(是甚麼), 40×153cm
④ 석정 스님, 달마 선서화, 32×127cm
⑤ 석정 스님, 선화, 37×100cm
⑥ 송담 스님, 달마도, 60×136cm
⑦ 월하 스님, 대방무외(大方無外), 137×37.5cm
⑧ 원학 스님, 추경산수화, 72×38.5cm

통도사, 개산 1376주년 영축문화축제 연다

통도사 경내 일원서 9월 18일~10월 17일

개산조 자장율사의 정신 기리고 통도사의 가치 · 역사 공유의 장 영축삼보이운 · 영축문화공연 등 불교전통의례와 문화축제 마당 "코로나로 지친 대중 힐링 기원"



영축총림 통도사가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산 1376주년을 기념하는 '영축문화축제 개산대재'를 경내 일원에서 연다. 사진은 지난해 진행된 영축문화축제 영축삼보이운 모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산 1376주년을 기념하는 '영축문화축제 개산대재'를 경내 일원에서 연다.

영축문화축제는 개산조 자장율사를 기리는 불교전통의례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축제로 매년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올해는 '나눔과 참여의 장', '역사와 문화의 장', '문화행사 및 전시'로 나눠 행사를 기획하고 다채로운 참여의 장을 마련했다.

'나눔과 참여의 장'은 일반인들이 직접 불교 전통의례를 관람할 수 있는 △영축삼보 이운 △괘불헌공 △영축문화공연 △괘불 특별전으로 진행된다. 영축삼보 이운은 괘불을 옮기는 행렬 의식으로 각종 번(幡), 기(旗)로 장엄한 전통의식이다. 이운행렬은 부도원에서 설법전 앞 괘불대까지 이어지며, 올해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송천 스님이 1년에 걸쳐 불사한 '석가여래괘불탱화'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운 후 괘불에 공양을 올리는 괘불헌공이 스님들의 바라춤과 더불어 진행된다. 영축삼보 이운과 괘불헌공은 10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다. 영축문화공연은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문화공연이며 10월 3일 오후 2시 육화당 건너편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괘불특별전은 10월 9일 오후 1시 성보박물관에서 개막하며 상설전시로 이어진다.

'역사와 문화의 장'은 개산조 자장율사를 기리고 역대 고승의 덕을 기리는 전통의식으로 △자장율사 영고재 및 개산대재 법요식 △부도헌다례 △가사배견으로 진행된다. 자장율사 영고재 및 개산대재는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설법전에서 봉행되며 부도헌다례는 10월 14일 오후 2시 부도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부도헌다례는 스님들과 선다회 소속 회원 뿐 아니라 통도사에 종사하는 사부대중이 함께 동참할 계획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자장율사의 가사를 직접 친견하는 가사배견은 10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성보박물관에서 진행된다.

'문화행사 및 전시'는 △통도사 문화재 알기 체험 △국화장엄 △특별전시로 진행된다. 통도사 문화재 알기 체험은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에 불이문과 일주문 앞에서 진행된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 행사로 컬러링과 퍼즐맞추기를 통해 통도사의 문화재를 알린다. 국화장엄은 9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도량일대에서 진행되며 9월 1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열리는 특별전시는 통도사를 주제로 찍은 사진전 '나도 작가다'가 감로당 앞에서 열리며, 통도사보 〈통도〉 표지 및 컬러링이 성보박물관 외부 일원에서 전시된다. 아울러 지역 작가들의 도자기, 연꽃사진, 서각도 8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명월료에서 전시된다.

통도사는 이번 영축문화축제를 '코로나 시대에 선사하는 치유와 안전'이란 메시지를 담아 기획했다. 통도사는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준비해 모두가 안전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산사와 불교가 전하는 문화축제로 지친 시민들과 사부대중이 힐링을 얻기를 바란다"며 "다채로운 행사로 개산조 자장율사의 정신과 통도사의 가치 및 역사를 공유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2021년 하반기 입학식

신입생 50명 입학, 총 200여 명 등록



부산불교교육대학이 9월 6일 대학 내 강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입학식을 진행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이 9월 6일 대학 내 강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입학식 및 신규탁 교수의 벽암록 특강'을 진행했다.

입학식은 △개회사 △삼귀의 및 반야심경 △선서 △환영사 △발원문 △사홍서원 △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학장 범혜 스님과 화엄승가회 소속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6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신입생은 총 50명이며 기초교리학과, 불교엘리트 과정 등 정규과정을 비롯해 불교문화학과, 신규탁 교수의 유튜브 강의 등 개설 강좌에 신입생과 150여 명의 학생이 등록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라는 기치를 펼치며 불자들을 양성하고 교육해왔다"며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명실상부 불도 부산의 산실 역할을 해온 역사를 담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부산불교교육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주역들이다"고 환영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982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불교대학으로, 도심포교에 앞장선 불교대학의 대표 주자이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자살 및 교통사고 없는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캠페인과 '남북평화통일기원 3보1배', '소외계층 위한 연탄나누기' 등 사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개교 이후 졸업생 1만5000여 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1200여 명, 승려 100여 명을 배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불교환경연대, 녹색 아카데미 회향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가 9월 4일 울산 백련사에서 '녹색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은 수료증 수여와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울산불교환경연대는 24명의 활동가를 배출했다.

수료식에서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교육을 통해 의식을 바꿔야 한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닌 만물의 일원이다. 스스로를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불교환경연대는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환경활동가 양성교육' 과정을 진행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코로나 극복기원 '추석맞이 자비나눔'

동림선원 · 혜원정사 등 소외 이웃 후원 전달식 개최

부산 경남에 위치한 사찰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 극복 기원과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사진은 동림선원이 9월 7일 개최한 '자비나눔 기부금 전달식' 모습.

부산 경남 지역 사찰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극복 기원과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다.

김해 동림선원(주지 신공)은 9월 7일 선원 내 3층 대법당에서 '자비나눔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동림선원은 전달식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 원과 백미 20kg 50포대, 총 1000kg을 장유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주지 신공 스님, 정서율 장유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문미영 복지팀장, 이정희 보건복지팀장 외 신도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동림선원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통도사 자비원과 김해서부소방서(장유119안전센터)에 추석 명절맞이 떡과 수건, 치약, 비누 등을 담은 세면용품을 전달했다.

동림선원은 "2018년부터 매년 후원을 이어 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 봉사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9월 6일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제구 이웃돕기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혜원정사는 전달식에서 연제구청에 백미 10kg 180포, 총 1800kg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주지 원허 스님과 이성문 연제구청장, 전현수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주지 원허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이 위로를 얻기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어렵지만 한가위 추석을 맞아 풍성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탁한 백미는 연제구청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동래구불교聯, 저소득가정 장학금 전달



부산 동래구불교연합회는 9월 6일 동래구청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연합회 십시일반, 장학금 500만 원

부산 동래구불교연합회(회장 용하)는 9월 6일 동래구청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동래구불교연합회는 지역 저소득가정의 아동 · 청소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장학금 500만 원을 동래구청에 기탁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회장 용하 스님, 前 회장 자관 스님, 용수 달마사 해운 스님, 김우룡 동래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회장 용하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어려워 지원 시기가 늦어졌다"며 "장학금은 前 회장이신 자관 스님을 비롯해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우룡 동래구청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해마다 성품과 성금으로 나눔을 실천하시는 동래구 불교연합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한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업이 힘든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의 정의 : 나와 다른 음의 에너지(죽은사람 · 동물 · 식물 · 기타 모든 영적 기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 빙의문제의 해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음적 에너지(영가기운)를 몸으로부터 분리, 천도해 주어야 이상증세, 이상행동이 바로 잡아짐(퇴마와는 다름).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도 효과가 나타남.

■ 여러 빙의증세 및 음적 에너지(영가기운)의 여러가지 영향

① 이사후 집이나 가게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집에 우환 발생, 꿈자리 사나움, 가위눌림, 가족간 불화, 가게터와 사업장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장사가 안됨, 사고나 싸움이 잦음)

② 사람에게 빙의된 경우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데 증세는 여전한 경우
가위눌림(밤마다 또는 가끔씩, 수많은 꿈에 시달림, 비몽사몽, 자고나도 몸이 무거움. 토끼(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 불면증(잠못 이룸)

③ 환청(이상한 소리 들림), 환각 증세 일어남
자살충동, 과다한 음주, 폭식, 불안증세, 우울증, 대인기피증, 알수 없는 통증,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집중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④ 장례식장, 상갓집, 국내 및 해외여행 다녀온 후 이상 증세 있는 경우

⑤ 동물영가가 들어온 경우
많이 키우고 10년넘게 장사한 경우(집안에 급병, 급사, 우환, 각종사고), 집에 키우던 개, 기타 동물 잡아먹은 경우, 뱀술 등을 먹은 후 이상증세 있는 경우

⑥ 식물영가 (거목 및 꽃나무를 베어낸 경우)가 몸에 들어온 경우

- 머리, 가슴, 팔, 다리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신기운에 의한 신병, 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광증 있으신 분
· 병원 다니고 여러번 굿하고 천도재 해도 효과 못보신 분
· 정신과병원 오래 다녀도 차도가 없으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천도가능함)
·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타종교인, 무종교인 상담도 가능

■ 환자상태를 상담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진행 - 육지에 계신 분 당일천도(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가능!
■ 차후 지속관리 상담해 드림 (또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빙의치유전문상담사 (전문자격 갖춤) - 전생빙의 트레이너과정 수료!
■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 신기운 제령 최고의 권위 실력 갖춤 - 20여년 경력, 임상 노하우 갖춤!
■ 원격치유가능 (외국에 있는 환자도 치유가능,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빙의 진단 및 해결)
◉ 오시는 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 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상담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 영가천도 전문상담원 문의전화 (064)746-0789

만복승복(가사)

{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KBS '6시 내고향' TV방영



청련사 생전예수재, 경기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 9월 9일 봉행

양주 청련사=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천년고찰 양주 청련사가 보존 · 계승해 온 전통의식 '생전예수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 지정이 확정될 경우 청련사는 서울 봉은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전예수재를 무형문화재로 계승하는 사찰이 된다.

태고종 청련사(주지 상진)와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는 9월 9일 청련사 경내 마당에서 '불기 2565년 생전예수시왕생칠재' 중 2재를 봉행했다. 이날 생전예수재에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생전예수재 조사위원들도 참석해 시연을 참관했다.

생전예수재는 오전 10시 30분, 장엄번이 경내에 장엄한 가운데 탑을 중심으로 괘불단과 어산단을 중심으로 엄수됐다. 법주는 상진 스님이, 거진 스님과 효암 스님이 바라지를 맡고 륜보, 효찬, 효진, 현담, 지휴, 혜명 스님이 작법으로 재를 이끌었다.

사회를 본 심곡 스님은 "생전예수재는 전생의 빚을 갚아 현세의 자신을 위해 지내는 49재로 단순히 개인의 고통과 번뇌를 없앨 뿐 아니라 세세생생 함께했던 인연들에게 참회하는 의미가 담겼다"며 "무상에 대한 깊은 인식과 교만, 죄업에 대한 뼈저린 참회가 담긴 전통불교의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련사 생전예수재는 의례의 핵심인 범패와 작법무, 장엄을 사중 스님들

경내마당서 불기 2565년 2재
무형문화재 조사위원 심사도

이 온전히 전승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례 설행이 청련사에 상주하는 스님들에 의해 설행될 뿐 하니라 전통의식인 재의 핵심을 범패로서 이끌며 사찰 사부대중이 현재까지도 이를 계승해 봉행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생전예수재에 앞서 괘불단으로의 괘불 이운 의식이 진행되자 경내 대중 모



양주 청련사가 9월 9일 '불기 2565년 생전예수시왕생칠재' 중 2재를 봉행했다.

두 합장한 채 집중했다. 괘불을 이운하는 신중작법은 생전예수제 거행에 앞서 모든 도량과 불법을 수호하고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의미가 담겼다. 이어 진행된 조전점안과 경함이운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전생의 업을 명부고사전에 바치는 형식이다. 설재자의 공덕을 회향하게 돼 다음 생에 복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본격적인 생전예수재는 명부의 사자를 청하고 보내는 사자봉송 불공의식과 소청명부 의식, 소청고사, 경신봉송, 전시식 봉송, 회향으로 이어졌다. 특히 소청명부는 지장보살과 명부시왕, 제성중 등을 청해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식으로 예수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때 청련사는 예수재 봉행의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의미로, 인례스님을 따라 전 대중스님과 신도들이 시왕번을 모시고 탑돌이를 하는 고유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진 소청고사는 고사단에서 고사불공을 올리고 금 · 은전을 영단으로 이운해 제사를 모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음회와 합장단 등 청련사 신도들이 인례 벽산 스님의 집전을 따라 동참해 명실공히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의식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전시식은 장엄번을 제거하는 의식에 이어 공덕게를 염송하며 시식불공을 올리고, 금은전을 제거해 소대로 이동하는 의식과 경신봉송, 봉송회향으로 이어졌다.

법주 상진 스님은 "청련사 생전예수재는 사중에 어장(법주)과 의식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스님들이 지금까지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무형문화재 지정을 전승단체로서 추진하는 이유 역시 후배들이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도제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한편 청련사는 신라 흥덕왕 2년 '안정사'라는 사명으로 창건된 후 조선초 무학대사가 중창, 도성의 비보사찰이자 나라의 안정을 발원하는 도량으로 역할했다. 현재 양주 청련사는 안정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법맥을 계승한 도량으로, 2010년 완공됐다. 창건 이후 여덟 번째 중창이다.

구례 천은사 포대화상 조성

구례 천은사(주지 대진)가 지난 9월 7일 경내에 포대화상을 조성하고 대중 친화적 사찰로 거듭나고 있다.

팔상전 앞마당에 있는 일명 '복돼지'로 불리는 바위 위에 2m 크기 석조로 조성된 포대화상 점안식은 화엄사 문장 종국스님의 증명으로 인우스님, 대진스님, 천태암 주지 대주스님을 비롯해 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주지 대진 스님은 "포대화상은 뭇 중생들에게 복과 지혜를 나눠주는 성인으로, 이곳 천은사 포대화상은 밑에 받치고 있는 돌이 복돼지 위에 조성하게 되었다"며, "전국 어디에도 있지만 이곳 포대화상을 통해 지치고 힘든 시절 마음속에 웃음 한가득 가져가길 기원하며, 지리산의 넉넉함과 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나눠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조성 의미를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시대의 스승' 태공당 월주 대종사 49재…"속환사바 하소서"

9월 8일 제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에서 엄수
종단 지도자 · 문도 비롯 사부대중 운집해 추모해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하며 한국불교를 이끌었던 시대의 스승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49재가 모악산 금산사에서 엄수됐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일원)는 9월 8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막재를 봉행했다. 49재는 스님이 생전 예토에서 펼친 가르침과 업적을 되새기고 유훈을 잇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원로의회 의장 세민 스님과 수석부의장 대원 스님 등 원로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종회의장 정문 스님 등 의원 스님들, 전국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종단 주요소임자 스님들과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 일오 · 원타 스님 등 전국선원수좌회 스님, 전국비구니


9월 8일 금산사에서 열린 태공당 월주 대종사 49재에서 대중스님들이 추모영상을 보고 있다.

회장 본각 스님 등 불교계 각 분야를 이끄는 스님들이 참석했다.

49재는 삼귀의례로 시작해 헌향과 헌다, 헌화, 종사영반, 입정, 월주 대종사의 생전 육성법문으로 이어졌다. 대중들은 추모와 회고로 스님의 빈자리를 애도했다.

문도를 대표해 도영 스님이 헌향했으며 도원 스님과 도법 스님이 헌다로 스승의 유지를 기린 데 이어,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종사영반을 집전한 가운데 종단 대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헌화와 문도 스님들의 헌화, 조문대표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과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 원로의원, 종회의원,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각 산하기관 대표와 신행단체 등의 헌화도 줄을 이었다.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은 49재의 의미를 설하며 "태공당 월주 대종사는 이 시대 한국불교 최고 선지식으로, 지구촌 곳곳의 중생제도는 물론, 한국불교를 중흥시킨 큰 업적과 공덕을 남겼기에 이미 도솔천 내원궁에서 여여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한평생 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饒益衆生)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큰 스승인만큼, 사부대중은 그 빈자리를 새삼 실감하며 유훈을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을 모아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문도인 원행 스님은 추모의 글에서 "스님을 보내드리는 재를 올리는 지금도 미욱한 제자들은 그 가르침이 그립고 또 그립다"며 "저희 사부대중은 스님이 열반하신 이후 종문의 지남과 귀감을 잃어버린 허허로움을 채울 길이 없다"고 애도했다.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은 "모악산 영봉에 지혜의 달은 지지 않았고 뒷산에서 울던 사자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다"며 "지나간 바람은 대종사의 가풍을 드날리고 일초일목은 대종사의 일기일경을 나툰다"고 추모했다. 도영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회고사를 전했다. 스님은 "월주 대종사는 정화의 기치를 드높였던 면모는 익히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 한평생 청정한 수행자의 남다름이 있었다"며 "명절을 앞두고 양말을 사 신으시라고 공양받으신 3만 원까지도 제게 주시며 '수입으로 잡아서 살림에 보태라' 고 하셨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회상했다.

이날 49재에는 10.27법난 피해자들을 대표해 회장 명선 스님의 추모도 이어졌다. 명선 스님은 "10.27법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 신군부의 총칼과 군화발로 새벽 3시 신성한 법당에 들어와 만행의 피해를 발생했을 때 대종사께서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불교계 역사에 남겨 후손들에게 경각심을 보여줘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빠른 시일내에 10.27 법난피해자법이 제정돼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길 발원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월주 대종사 문도 일동은 '감사의 글'을 통해 "평생 자비행과 보살행의 길을 걸어오신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종단장과 49재에 동참해 주신 원로대덕 스님들과 사부대중에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문도들은 대종사께서 늘 강조하신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요,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몸이다'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는 가르침을 온전하게 받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큰스님께서 못다한 원력을 실현하고 유지를 계승하는 데 사부대중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제 금산사=송지희 기자
전북지사=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불교교황청 봉송고불축대법회

세계불교 교황청에서 주최하는 '봉송고불축하법전 대법회'가 9월 10일 평택 원평포교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스리랑카의 국민들을 돕는 한편, 스리랑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고 양국의 불교발전을 기원하는 취지로 열렸다. 법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석가산 스님은 이날 후원물품인 동국제약 약품(1억 5000만 원 상당), 라면 500상자, 마스크 5만 장을 스리랑카 주한대사 사지 맨디스 박사에게 전달했다.

석가산 스님은 법어에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가 먼 이웃 스리랑카에까지 널리 전달되어 참으로 기쁘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天地大學經

눈밝은 자는 보고, 귀 열린 자는 듣고 인연자는 찾을 것이어라! 혼란과 병란 그리고 비리와 겁액으로 벼랑 끝에 몰린 혼돈 세상을 구현하는 21세기 신세계 메시지 「미륵님의 말씀,진리」를 신인류, 새시대의 구도자들에게 「천지대학경」을 밝히는 바이다. 정진하시옵사 대각 성도 하시옵길 비옵나이다.

- 金山 드림



성의금(671쪽) : 50,000원

● 농협 : 209-02-679386 김남식 ● 전화 : 010-2762-8235 道政院

佛法 담은 미술로 지친 대중 위로

한얼우리그림협회 특별전 '卍卍展'

하동 칠불사 9월 10일~11월 30일

부처님 가르침 의미 풀이한 작품

조각·회화·사진 등 54점 선보여

코로나 종식·평안 염원 메시지도

우리미술 해외 널리 알리기 위해

'소천민화협회' 모태 2019년 창립

2022년 프랑스 전시도 개최 예정



손유경 作, Where am I going? / 46×46cm 한지에 혼합재료



김선희 作, 삼신삼세불도 / 116×132cm 비단에 채색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의 얼이 담긴 미술을 추구하는 한얼우리그림협회(회장 손유경)가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남 하동 칠불사(주지 도응) 보설루에서 특별전 '卍卍展'을 개최한다.

한얼우리그림협회의 세 번째 회원전인 이번 전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를 주제로 하고 있다. 한얼우리그림협회 회원 중 27명의 작가들이 조각, 회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 은혜, 소망이라는 주제로 작업한 다양한 기법의 작품 54점을 선보인다.

한얼우리그림협회 손유경 회장은 "코로나 시대에서,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물음을 부처님 가르침의 의미를 풀이한 작품을 통하여, 관람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집멸도 사성제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염원한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딸아이가 고3이 되면서 자연스레 절에 다니게 됐다. 나 자신을 한 번쯤 뒤돌아 볼 수 있는 여유와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는 절. 주제를 정함에 있어 주저 없이 '연(꽃)'을 선택했다. 살랑살랑 춤을 추는 연잎에 미소 지으며 염원과 기도라는 테마로 연을 그려보았다."

김미경 작가는 작품 '기도'와 '도약'에서 분채와 봉채, 먹을 사용해 연꽃을 그렸다. 연잎 위에는 합장한 동자승이 숨은 그림처럼 앉아있다.

연꽃은 그 외 많은 작가의 작품에서도 등장한다. "어지러운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연꽃 / 척박한 진흙탕 환경에서도 아름다움으로 / 예쁘게 꽃을 피워 우리 삶의 공간에서 / 마음과 영혼의 내면을 행복하게 치유해주고 / 그 도도함과 청정함을 잃지 않는다." 사진가 손기환은 연꽃을 찍은 사진작품 '여름날의 흔적', '연꽃 사랑'에서 중첩 기법을 이용한 추상적 이미지로 연꽃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행복한 모습의 동자승은 부처님의 자비로움과 여유 있는 미소를 표현하고자 하였고, 더불어 쌈지와 골무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표현했다." 김인영 작가의 동자승과 연꽃을 소재로 한 '자비 1'과 '자비2'는 한 편의 동화를 보는 듯하다.

안옥희 작가 역시 연꽃을 주제로 받았다. 한지나 비단이 아닌 캔버스에 아크릴물감으로 그린 안 작가의 연꽃('무의식 속의 추억 1, 2')은 동양적인 화풍과는 다른 디테일과 입체감을 보여준다.

이수빈 작가가 순지에 분채와 봉채, 먹을 이용해 그린 '연화도 1, 2'는 장식성과 상징성이 잘 드러난다.

회장 손유경 작가는 부처님의 상호를 현대적 이미지로 해석했다. 부처님을 종교적 의미 너머에서 바라본다. "우리 살아가는 길 중간에 나는 어느 어두운 숲 속에 서 있었네. 곧은 길이 사라져 버렸기에." 미술과 예술의 소재와 주제로 재해석된 손유경의 부처님은 신앙의 대상을 넘어 미학으로 확장되고 예술로서 대중을 위로한다.

현대적 불화를 그려오고 있는 김선희 작가의 '삼신삼세불도'는 형식적으로는 오불회도이고, 내용적으로는 삼신삼세불도라고 할 수 있다. 상단에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석가불과 노사나불의 삼신불을 그리고, 하단에는 약사와 아미타불을 배치하여 2단 구도를 이루고 있다. 즉, 상단은 삼신불, 하단은 삼세불을 한 화면에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 법신·보신·화신의 삼신불과 과거·현대·미래의 삼세불을 한 화면 안에 담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의 얼과 불교를 담은 많은 작품들이 대중을 기다린다. 경전 속의 부처님 말씀을 미술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전시를 주관하는 칠불사 주지 도응 스님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혼과 얼이 담겨있는 작품을 추구하는 작가들의 단체인 한얼우리그림협회와 인연이 되어, 불교적 신심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분들의 작품을 칠불사에 모시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코로나로 움츠린 예술 활동이 저희 칠불사로 인해 화려한 지리산 단풍처럼 깨어나고, 이번 만만전이 성공적인 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에서 밝혔다.

한얼우리그림협회는 2019년 손유경 회장이 우리의 혼과 얼이 담긴 작품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창립했다. 2007년 손유경 회장과 문하생의 전시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소천민화협회'가 한얼우리그림협회의 모태다.

그 후 9회에 걸쳐 회원전을 열었으며, 프랑스 등 해외 전시를 통해 우리 민화를 알리고자 했던 손유경 회장은 우리의 전통적인 미술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신념으로 한얼우리그림협회를 창립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해외 전시와 협회전이 취소됐다. 2021년에는 회원전과 만만전, 수원 뉴텍갤러리에서 전시를 개최하고, 2022년에는 취소되었던 프랑스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한얼우리그림협회 회원은 150명이다.

이번 전시를 주관하는 칠불사(경남 하동군)는 지리산 해발고도 830m 토끼봉에 자리한 사찰이다. 가락국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지금의 칠불사 자리에 암자를 짓고 수행했고 6년 만에 성불했다고 한다. 전시 문의 (055)883-1869

'卍卍展' 참여 작가와 출품작

△고재봉 / 그리움 하나 · 삶의 향기
△김미경 / 기도 · 도약
△김선희 / 삼신삼세불도 · 수월관음도 外
△김인영 / 자비1(mercy 1) · 자비2(mercy 2)
△김중기 /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2점
△민태연 / 바람 불던 날 2점
△박현주 / 연화도 2점
△석지연 / 나비 동자 · 봄나들이 동자
△손기환 /여름날의 흔적 · 연꽃 사랑
△손유경 / Where am I going? 2점
△안옥희 / 무의식 속의 추억1, 2
△양상웅 / 진해 천자암 산신각 2점
△유영희 / 힐링포인트 · 극락선과
△엄혜란 / 물고기 노닐다 1, 2
△여명 / 달마도 · 관음도
△유희순 / 주악비천상 · 달항아리(우주)
△이수빈 / 연화도1, 2
△이수환 / 불탑과 장독대 · 희망
△이정숙 / 좋은 인연 · 연꽃
△이한길 / 달을 품다 2점
△이희순 / 처염상정 ·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임효선 / 慈悲(자비) · 용솟음
△장석운 / 정도 · 진인사 대천명
△정영모 / A Story of Home Town · 히말라야 봄봄봄
△최소윤 / 동경(憧憬)하다 5 · New World 2
△최옥희 / 백복도 · 연화도
△최종윤 / 신묘장구대다라니 · 능화판(덩쿨연)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대아미타사(경주), 주천사(고양시), 전국 캠핑장 캠핑 트레일러에 설치, 경인아라뱃길, 가평자라섬, 대부도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전국 600군데 설치 사용중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복을 가져다 주는 행운의 말발굽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사람도 재운이 있어야 돈도 벌고 명예도 얻습니다. 그러기에 금전운을 키워야 합니다.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도와주는 것이 있었으면 할 때 말발굽을 소장해 보세요. 말(馬)은 원래 서양 속담에 "말굽을 발견하면 행운이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을 밟고 지나가지 않는 습성이 있어, 예로부터 액운을 막고 복을 가져다주는 상징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없던 복도 굴러 들어오고, 재산을 모으고, 장애물을 쉽게 넘어갑니다. (모든 일이 술술 뜻대로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들어온 복을 지켜주며, 선물용으로도 좋고 장식용으로도 좋습니다.
● 초진재보란?
재물에 욕심을 부리면 재물이 피해 가지만 재물을 사랑하고 초대하면 재물이 저절로 들어온단 뜻입니다.
*말(馬)이 실제로 사용한 굽이여서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가좌로 248 유튜브 "유명표구사" 검색
유명액자만물 Tel. 010-3308-6986
※ 전국택배 됩니다.
기업은행 041-002694-03-016 이종부
30만원 사이즈 54X47X5cm
*모든 액자틀은 원목을 사용합니다.
20만원 사이즈 49X34X5cm
11만원 사이즈 35X35X5cm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화엄사 대웅전 비로자나삼신불회도(보물). 지난 6월 국보로 지정된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후불탱 세 폭으로 구성됐다. 사진 왼쪽부터 비로자나불회도, 노사나불회도, 석가불회도.

국보 · 보물 화엄사 성보들 '서울 나들이'

불교중앙博 교구본사 특별전 '화장 지리산 대화엄사' 개최

올해 국보 지정 삼신불좌상 복장물
보물 비로자나삼신불회도 '첫 공개'
화엄경을 돌에 새긴 '화엄석경' 눈길
근현대 화엄사 선지식 유품도 선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보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중 노사나불의 복장물.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화엄사 '화엄석경'의 모습. 1만 4000여 편으로 이뤄져 있으며, 화엄사가 오래전부터 화엄사상을 선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는 화엄종주 의상 스님이 화엄사상을 전파한 '화엄십찰' 중 하나다. 고려시대에는 부석사와 더불어 화엄종을 대표하는 사찰이었지만, 조선시대 이후 숭유억불 정책으로 쇠락의 길을 걷다가 임진왜란, 정유재란으로 폐허가 되는 아픔을 겪었다.

화엄사가 현재의 사격을 다시 되살린 것은 1630년경 대웅전 복원 불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다. 당시 불사의 중심에는 벽암 각성(1575~1660)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대웅전 중건, 괘불 봉안,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조성 등에 참여하며 화엄사의 재건을 이끌었다.

양란 이후 어려웠던 시절임에도 대규모 불사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조선 왕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벽암 각성 스님과 친분이 두터웠던 동양위 신익성과 의창군 이광이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대시주로 참여했다. 기록에 따르면 왕실 인물과 승려 580명 등 총 1320명이 시주자로 참여했다. 각황전 중건 불사에는 숙빈 최씨와 연잉군(훗날 영조)이 대시주로 이름을 올렸다.

왕실이 후원한 불사였던 만큼 화엄사의 주요 성보문화재들은 당대 최고 수준의 작품성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국보로 지정된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이다. 삼신불은 법신(法身)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 보신(報身) 노사나불(盧舍那佛), 화신(化身) 석가불(釋迦佛)을 의미하며 화엄사상에 근원을 둔 도상이다. 변상도나 사경 등에는 종종 보이지만, 조각상으로는 화엄사 사례가 유일하다. 17세기 불교사상과 미술사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는 삼신불좌상은 지난 2008년 보물로 지정됐으며, 올해 6월 국보로 승격됐다.

삼신불좌상의 후불탱인 비로자나삼신불회도는 18세기 삼신불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성보문화재로 각각 비로자나불회도 · 노사나불회도 · 석가모니불회도로 구성됐다. 지난 2003년 보물로 지정됐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탄)이 9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개최하는 교구본사 특별전 '화장(華藏) 지리산 대화엄사'는 17~18세기 조선시대 불교미술의 정수가 담겨있는 화엄사의 성보문화재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다.

특히 지난 6월 국보로 승격된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복장유물과 보물로 지정된 화엄사 비로자나삼신불회도는 대중에게 처음으로 그 모습을 선보이기에 눈길을 끈다.

세 폭으로 구성된 화엄사 비로자나삼신불회도는 3회로 나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대중들에게 공개된다. 공개 일정은 비로자나불회도는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노사나불회도는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석가불회도는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다.

삼신불회도의 친견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약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친견은 매일 오전 10시 30분, 매회 20명으로 제한해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박물관 홈페이지와 전화로 가능하다.

'화엄십찰'로서 화엄사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성보들도 눈길을 끈다. 1만4000여 점이 넘는 조각편으로 전해오고 있는 〈화엄석경(보물)〉은 화엄사가 오래전부터 화엄사상을 선양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보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경전을 돌에 새긴 사례는 경주 창림사지와 칠불암, 서울 영국사지에만 전할 만큼 매우 귀중하다"면서 "법보로서 불전을 장엄하고자 조성된 '화엄석경'은 〈화엄경〉을 돌에 새긴 현전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와 화엄사의 사격(寺格)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엄사 불전에 공양구로 사용됐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자기인 '백자홍치2년명송죽문항아리(국보)'를 만날 수 있으며, 태안사에 전해오고 있는 '대바라(보물)'를 통해 조선시대 불교의식의 장엄함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근현대 화엄사 중흥조로 평가받는 도광 스님과 도천 스님의 수행, 교화 원력을 느낄 수 있는 유물들도 전시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 화엄 사상의 원류와 전승을 조망하는 특색있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며 "지리산 권역 화엄사 말사의 아름다운 불교미술을 소개하며 화려하게 펼쳐졌던 전남의 불교문화의 일면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11회 반야학술상 김종명 前교수 선정

11월 7일 통도사 반야암서 시상



불교학 연구업적이 뛰어난 중견급 연구자들을 시상하는 제11회 반야학술상에 김종명 前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사진〉가 선정됐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제11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김종명 前 교수를 선정했다"고 9월 6일 밝혔다.

김 前 교수는 서울대에서 유가공학을 전공으로 학사 ·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UCLA에서 한국불교학 전공으로 석사 ·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불교의례를 비롯한 불교문화, 불교와 국가 및 선사상 중심의 한국 불교학과 해외 인문한국학을 연구해 왔다. 청호불교복지대상(학술부문)과 불이상(학술부문)을 수상했으며,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에 세계 지성 3% 및 평생 공로 회원으로 등재됐다.

학술상의 상금은 1000만 원이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7일 오후 1시 통도사 반야암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한국학으로서 불교학 지형 · 방법을 논하다

동국대 세불연, 18일 학술대회

국학과 한국학으로서 불교학의 지형과 방법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오는 9월 18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국학과 한국학으로서 불교학의 지형과 방법'을 주제로 제20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김원명 한국외대 철학과 교수가 '분황 원효 사상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보조 지눌의 사상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조경철 연세대 사학과 초빙교수가 '인각 일연의 사상과 고유성과 독특성'을 발표한다.

또한,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가 '청허 휴정 사상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봉선사 능엄학림 상묵 스님이 '탄허 택성 사상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청동 스님(한마음선원), 김영미 동국대 파라미타칼리지 교수,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 명계환 동국대 불교학과 외래교수, 최용운 서강대 교양연구원 초빙교수가 참여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는 "학술대회를 통해 원효, 지눌, 일연, 휴정, 탄허 사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종합성과 고유성, 독특성의 측면에서 규명해보려 한다. 이는 국학과 한국학으로서 불교학의 지형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불자와 학자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제9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고(故) 세주 묘엄 명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 2021년 9월 10일(금) ~ 10월 20일(수)

시상내역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수상한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이고,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돼야 한다.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http: //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46292 부산시 금정구 금정로 42(장전동) 문화공간 봄(BOMM) 2층 윤종갑 교수
- 문 의 : 사무국장 윤종갑 010-2314-2722 greencw@hanmail.net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 상 식 : 2021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 대법당 세주 묘엄 스님 제10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34

▶ 35회 예고
아쇼까는 담마팔 승려로부터 데비의 전생과 현생에 일어날 일을 듣는다. 데비가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하여 부호의 딸로 태어났으며, 또 결혼해서 낳은 아들과 딸은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데비, 산치 언덕서 아쇼까를 만나다

시프라강이 토해내는 안개가 들판과 구릉을 뒤덮었다. 목화꽃이 일제히 피어난 듯 허연 빛깔 일색이었다.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는 물러가지 않겠다는 듯 안개는 완고했다. 그러나 베디샤나가르로 가는 황톳길은 어렴풋이 드러나 보였다. 아쇼까 부왕의 순행은 짙은 안개 속에서 시작했다. 선봉대장이 이끄는 선봉대가 전위부대 역할까지 했다. 기마부대인 호위부대는 코끼리를 탄 아쇼까 부왕의 앞뒤 호위를 책임졌다.

아쇼까는 코끼리등 위 일산 아래 앉아서 전방과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나아갔다. 이동명령은 호위대장을 불러 전하면 호위대장은 선봉대장에게 전했다. 그러니 군마를 타고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은 호위대장이었다. 아쇼까가 호위대장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는 어딘가요?"

"베디샤나가르입니다."

"베디샤나가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곳을 먼저 가시오."

아쇼까는 사전에 선봉대장과 호위대장이 다녀온 마을이지만 자신도 직접 지형정찰을 하고 싶었다.

"산치에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에 오르면 베디샤나가르를 한눈에 살필 수 있습니다."

"좋소. 오늘 도착지는 산치 동산이오."

아쇼까의 지시를 받은 호위대장이 선봉대장에게 달려갔다. 명을 전달받은 선봉대장은 또 다시 아쇼까의 주도면밀함에 놀랐다. 군사는 어느 곳을 가든 적의 기습공격을 예견해야 하고, 어디로 후퇴해야 할지를 미리 정해놓고 이동하는 것이 병법의 기본인 것이었다.

호위대장이 돌아오자 아쇼까가 또 말했다.

"숙영지는 정했소?"

"따로 숙영지를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소?"

"베디샤나가르에서 주무신다면 숙영지가 필요하겠지만 마을에서 떨어진 저택이 있습니다."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순행의 원칙이오."

"민폐가 아닙니다. 베디샤데바 수장이 부왕님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맞소. 초대받은 것도 같소. 베디샤데바 수장이 연회장에서 나를 정중하게 초대했소."

"그래서 소장이 먼저 가서 정찰을 했습니다."

"저택에서 머물 때 경비 등 문제는 없소?"

"부왕이시여, 저는 저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대장이 어떻게 저택의 사정을 안단 말이오?"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 저택입니다. 저택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저의 외사촌 형입니다."

"왜 그 말을 이제야 하는 것이오. 어쨌든 안심이 되오."

"부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외사촌 형의 이름은 타리쉬입니다."

호위대장은 더 이상의 말은 하지 못했다. 순행에 관한 모든 계획은 비밀에 부치라는 엄명을 해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호위대장은 외사촌 형인 타리쉬에게 아쇼까 부왕이 가니까 저택과 정원을 잘 단장해 두라는 귀띔을 해준 바 있었다.

아쇼까 일행은 아침 해를 마주한 채 베디샤나가르 쪽으로 나아갔다. 고집스럽게 버티던 안개도 어느 새 구릉의 망고나무숲 너머로 물러갔다. 안개 속에서 사탕수수를 수확하던 농사꾼들이 그제야 드러났다. 남녀 할 것 없이 긴 사탕수수 묶음을 머리에 이고서 길가로 옮기고 있었다. 머리에 인 사탕수수 묶음이 걸을 때마다 출렁출렁했다. 사탕수수밭을 지나자, 이번에는 광활한 목화밭이 펼쳐졌다. 아침햇살을 받은 목화꽃이 순백으로 빛났다. 코끼리를 타고 가던 아쇼까가 감탄했다.

'빠딸리뿌뜨라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관이군.'

아쇼까 일행은 작은 강을 만나 잠시 휴식을 취했다. 강을 건너려면 진흙이 없는 곳을 찾아야 했다. 코끼리는 체중 때문에 군마와 달리 자갈이 많아야 강을 건너기가에 용이했다. 강을 먼저 건너갔던 선봉대장이 다시 돌아와 아쇼까에게 보고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날이 저물지도 모르니 여기서 마지막으로 휴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바닥은 어떻소?"

"진흙 반, 자갈 반입니다. 말이나 코끼리가 건너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휴식한 뒤 이곳으로 건너가도록 하시오."

선봉대장은 미리 지형을 답사, 정찰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했다. 아쇼까는 코끼리가 강가의 풀을 뜯어먹는 것을 보면서 중얼거렸다.

'강가의 풀을 다 먹어치울 기세군.'

코끼리는 호위군사의 눈치를 보면서 눈앞의 풀을 쉬지 않고 먹었다. 그러다가도 강가로 내려가 코와 입으로 강물을 실컷 들이켰다. 이윽고 아쇼까가 호위대장을 불러 명했다.

"이동하시오."

아쇼까 일행은 강을 무리 없이 건넌 뒤 베디샤나가르를 향해 갔다. 한 나절을 더 동남쪽으로 내려가자, 멀리 산치 동산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산치 동산은 실제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있었다. 들판과 구릉 끝의 지평선이 주는 착시현상 때문이었다. 적어도 한나절은 쉬지 않고 더 가야만 산치 동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었다. 아쇼까는 웃자인으로 오면서 광활한 들판을 지나는 동안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요령을 터득하고 있었다.

마침내 아쇼까 일행은 산치 동산에 도착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민둥산 같은 동산만 있었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 붉은 벽돌집이 하나 나타났다. 아쇼까가 호위대장을 불러 물었다.

"저것은 망루인가? 군사 시설인가?"

"아닙니다. 절입니다. 베디샤데바가 지은 절입니다."

"사끼야족 후손들은 개인 절을 갖고 있는 것이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베디샤데바 가족이 기도하기 위해 지었을 것입니다."

절에 먼저 들어가 정찰한 선봉대장이 승려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부왕이시여, 이 사문이 절책임자입니다."

아쇼까가 코끼리 등에 앉은 채 말했다.

"절에 들어가 볼 수 있소?"

"당연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한 분이 기도 중입니다."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오?"

"예, 부왕이시여. 기도가 끝날 때까지 군사들은 조용해야 합니다."

아쇼까는 선봉대와 호위부대 군사들을 절문 앞에서 몇 십 걸음 물어나게 지시했다. 그제야 절 책임자 승려가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을 소개했다.

"소승 담마팔은 부왕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위해 배려해주는 부왕님을 소승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문은 한 사람의 기도를 위해 배려하고 있소. 나는 겸손한 사문을 잊지 않을 것이오."

아쇼까가 코끼리 등에서 내려와 담마팔 사문에게 공손하게 합장했다. 그런 뒤 물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요?"

"예, 베디샤데바 수장님 딸 데비입니다."

"데비라고요?"

아쇼까가 미소를 짓자 담마팔 사문이 말했다.

"부왕이시여, 알고 계시는 듯합니다."

"베디샤데비를 한 번 본 적이 있소. 여기서 또 만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소. 이것도 특별한 인연이오."



아쇼까는 데비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절로 들어가지 않고 혼자서 동산을 배회했다.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서쪽 하늘은 붉은 노을이 활활 불타는 듯했다. 솜덩이 같은 구름 조각들마저 곧 벌겋게 타버릴 것 같았다. 잠시 후였다. 담마팔 사문이 데비를 데리고 아쇼까에게 왔다.

"부왕이시여, 데비입니다."

"오, 데비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줄 전혀 생각지 못했소."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달마팔 사문이 슬그머니 물러나 자리를 피했다. 그러자 아쇼까가 데비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산치 동산에서 바라보는 석양이 성스럽기까지 하오."

"저는 석양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석양은 밤을 부르면 지평선 안에 살아 있는 것들이 어머니 품속에 안긴 듯 잠을 자니까요."

"오, 데비의 자애로운 마음이 느껴지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석양을 보고 어머니를 생각하겠소."

베디샤데비는 아쇼까가 자신을 어머니처럼 자애롭다고 말하자, 갑자기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렸다. 데비의 얼굴도 노을처럼 붉어졌다. 그러나 아쇼까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데비의 얼굴에도 노을이 어렸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산치 동산에도 어스름이 슬금슬금 차올랐다. 선봉대장이 다가와 말했다.

"부왕이시여, 이제 베디샤데바 수장이 기다리고 있는 저택으로 가셔야 합니다."

"알았소."

아쇼까가 코끼리를 타면서 데비에게 권했다.

"이 코끼리를 타겠소?"

"부왕님 코끼리를 감히 제가 어떻게 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타고 온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타고 먼저 가시오. 나는 군사들과 천천히 데바 수장의 저택으로 가겠소."

아쇼까의 말은 상대를 복종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베디샤데비는 아쇼까의 말을 명령처럼 받아들였다. 더구나 데비는 아쇼까 부왕이 산치 동산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 베디샤데바에게 빨리 알릴 필요가 있었다. 데비는 말을 생각보다 잘 탔다. 말 등에서 허리를 잔뜩 굽힌 뒤 달렸다. 데비의 머리카락이 말갈기처럼 날렸다.

집에 도착한 데비는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소리쳤다.

"부왕님이 우리 집으로 오신답니다! 부왕님이 우리 집으로 오신답니다!"

"다 알고 있다."

정원에 나와 있던 베디샤데바가 조용히 말했다. 데비가 무안해하며 타리쉬에게 물었다.

"사실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데비 아가씨, 며칠 전부터 집과 정원을 단장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땅거미가 지고 어둠이 저택과 정원을 서서히 에워쌌다. 집사 타리쉬가 지시하자 하인들이 일제히 저택의 방들로 들어가 기름불을 켰다. 마치 하늘에 별이 돋는 것처럼 기름불이 하나 둘 켜졌다. 정문에서 저택 현관으로 들어오는 길 양편에는 횃불이 타올랐다. 저택 주변은 대낮처럼 환해졌다. 대형화분의 부겐빌리아 꽃들이 횃불 불빛에 순결하고 요염하기조차 했다.

데바 가족은 물론 하인들 모두 정문 밖에서 도열했다. 아쇼까를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데바와 데비도 아쇼까를 기다렸다. 이윽고 아쇼까가 코끼리 등에서 내려와 어둠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흰색 도티와 모자 때문에 아쇼까만 유독 활기차게 보였다. 좌우로 선봉대장과 호위대장이 한 걸음 뒤따라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림자 같았다. 데바와 데바 부인이 아쇼까 앞으로 나아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부왕이시여, 무한한 영광이옵니다."

"고맙소."

하인들도 일제히 땅바닥에 엎드려 아쇼까를 맞이했다. 아쇼까는 정문에 들어서면서 한껏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쇼까의 미소가 횃불 불빛에 드러났다. 아쇼까가 하룻밤 묵게 될 방까지는 데비가 안내했다. 아쇼까는 방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베란다로 나와 저녁을 데바, 데바 부인, 데비와 함께 할 계획이었다. 〈계속〉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대형사찰 명품고가의 마이크와 비교시 장난감수준의 차이를 확인 후 할부구입

전화를 주시면 그 부근을 지날때 정확하게 비교만 해드림

▣ 특징 : 권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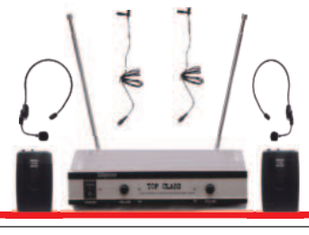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80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80만원

[전국 최초 최고불자명품교육기관]

무명에서 빛을 찾아 함께 갑시다!

부산불교교육대학

개교 40년 맞이

하반기 신입생 大모집 유튜브 강좌 개강

정 규 과 정

■ 기초교리학과 (6개월, 화 / 유튜브 강좌 병행)
기초 핵심교리를 알기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학장 스님)

■ 불교엘리트 1기 (6개월, 목 / 유튜브 강좌 병행)
●금강경 (前 해인사 강주 보윤스님)

신규탁 교수의 유튜브 강의

■ 벽암록 (3개월, 월 · 수 / 각 30분)
●선종의 최고 과목

■ 화엄경 (6개월, 화 · 금 / 각 60분)
●교종의 최고 과목

자격증 취득 과정

■ 불교문화학과 (6개월 / 김춘식 교수)
사찰문화재 중심 시청각 강의 및 현장답사
▶불교문화 포교사(수) (민간자격 등록 2018-000374)
▶불교문화 전문지도사(금) (민간자격 등록 2019-000629)

승려연수 인증교육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10/18(월)~22(금) 5일간 13:30~16:30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비대면 ZOOM 화상 교육 (조계종 승려 50명)

※ 각 학과별 매주 1회 오후7시~9시 강의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⑰ 선종의 종전, 〈육조단경〉



▶ 한줄 요약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한다

정혜 쌍수 속에 부처님 가르침이…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화제를 모은 배구 국가대표 리더 김연경 선수는 '기독교는 성경, 불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 이라는 슬로건으로 자존감을 드러내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경(佛經)에 담겨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려는 불제자라면 누구나 불경을 공부하고 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이 아닌 그 제자의 말을 모아 경(經)이라 붙인 경전이 딱 하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선종의 종전(宗典) 〈육조단경(六祖壇經, 이하 단경)〉이다.

〈육조단경〉은 선종의 6조 조계 혜능 대사가 법문한 것을 소주 자사(刺史, 지금의 도지사) 위거가 제자인 법해(法海)에게 기록을 부탁하여 필사하고 책으로 편집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단경〉은 거의 1300년의 오래된 책이니 필사와 전승 과정에서 첨삭이 많아져 후대에 여러 본이 전해져 혼란이 없지 않았다. 20세기 초에 돈황 막고굴에서 '돈황(敦煌)본' 이 필사본 형태로 발견되니 가장 오래된 원형로 평가된다. 성철 스님은 돈황본을 구해서 손수 번역 출판하여 선 수행자들에게 지침을 삼도록 하였다.

〈단경〉은 참선 수행자들에게 지침서일뿐 아니라 중국 공산혁명의 지도자 모택동도 가까이 두고 탐독하였다고 한다. 공산당은 본래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며 억압하는데, 혜능대사는 가난한 나뭇꾼이었으니 노동계급 출신의 성인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또 〈단경〉은 〈논어〉, 〈맹자〉, 〈도덕경〉, 〈삼국지〉와 함께 중국 5대 명저로 꼽힌다.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에서는 〈육조단경〉을 보지 않고 불교를 말한다면 달은 영영 보지 목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 사람이라 한다.

선종의 종전인 〈육조단경〉을 '돈황본' 으로 공부하며 선의 지혜를 밝혀보자.



2013년 불교포럼 순례단의 중국 성지순례 '육조 혜능대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당시 '대감사' 참배 모습.

6조 혜능, 소주에서 설법하다.

6조가 조계산에 주석할 때 소주(지금의 소관시) 지사가 관료와 시민을 위해 설법해주실 것을 청한다. 이에 소주 대범사(지금의 대감사)에서 1만여 명이 참석한 큰 법회가 열렸다. 이것이 〈단경〉이 설해지는 연유이다. 이 법문은 6조의 제자 법해가 기록하여 전해지게 되었는데, 〈돈황본 육조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소주) 자사가 문인 법해(法海)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였는데, 이것을 모아 널리 유행케 하여 후대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 종지를 계승하여 서로 전해주게 함이라."

〈단경〉을 설하고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은 종지(宗旨)를 계승하여 전해주려는 것이다. 여기에 기록자와 기록하여 전하려는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 있다.

그럼에도 대만 학자 호적과 일부 일본 학자, 그리고 이들에 영향 받은 일부 국내 학자와 학승들은 아직도 '육조단경의 신회 조작설' 과 '육조단경의 허구설' 을 공공연히 주장하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이분들이 〈단경〉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선의 종지(宗旨)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선에 입문하는 이들은 반드시 선의 종지에 안목을 갖춘 바른 선지식과 정견을 세우고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서 돈오선을 등지고 생사 윤회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다.

〈단경〉에서 6조는 이 법문을 듣는 이들을 '선지식(善知識)' 이라 한다. 대승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향해 바른 길을 알려주는 이를 선지식이라 하는데 6조 대사는 법문을 들으려 모인 사부대중을 선지식이라 하였다. 이것도 선종의 특색이다. 이것은 법문을 하는 6조 대사나 법문을 듣는 사부대중이나 차별이 없는 본래 부처임을 드러낸 말이다. 〈단경〉은 이처럼 본래성불(本來成佛)의 종지를 철저히 드러내고 있다.

〈단경〉의 핵심, 정혜(定慧)

6조는 〈단경〉 '정혜품' 에서 이렇게 말한다.

"선지식아! 나의 이 법문은 정(定)과 혜(慧)로써 근본을 삼는다."

이 정혜가 〈단경〉의 핵심이고, 근본이다. 6조가 말한 정혜(定慧)를 바르게 이해해서 안목을 갖춰야 비로소 선(禪)에 대한 정견(正見)이 서는 것이다. 6조의 정혜란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中道)를 말한다. 불교는 중도를 떠나서 성립될 수 없다. 부처님이 깨달아 생사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난 것이 중도인데, 6조는 이 중도를 정혜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 중도와 정혜는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 **선종의 宗典 〈육조단경〉**
> **'정혜품'서 지혜방편 일러**
> **양변의 분별망상 버려야**

정혜란 무엇인가?

정혜란 우리 마음을 말한다. 우리 마음이 양변을 여의면 정(定)이 되고, 그 자리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을 혜(慧)라 한다.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사마타-위빠사나' 가 바로 정혜다. 정 = 사마타는 우리 마음에 번뇌망상이 없는 경지, 고요함을 말하고, 그 고요한 자리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 혜 = 위빠사나다.

정혜를 지관(止觀)이라고도 한다. 혜민 스님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책 제목이 바로 지관이다. 지관이 바로 정혜다. 우리 마음이 분별망상을 멈추면 지혜가 나오는 것이다. 말은 다르지만, 이치는 같다. 예를 들어 같은 물도 우리는 물이라 하지만, 영어로는 워터(water)라 하듯이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6조는 정혜라 하였다.

정혜는 부처님의 깨친 마음이다. 중생의 마음은 나-너, 있다-없다, 안다-모른다 하는 양변에 집착하여 분별망상이 끝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고를 반복한다. 깨친 부처의 마음은 분별망상이 사라져 고요하면서도 지혜가 항상 비친다. 정혜, 지관, 사마타위빠사나가 항상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음, 중도, 깨어있기로 표현한다.

정혜쌍수는 교(敎), 정혜등지가 선(禪)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 정혜를 정과 혜로 나누어 보아 정과 혜가 다르니 정과 혜를 각각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정과 혜를 다르다고 보아 따로 따로 닦는다는 말은 6조 당시에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 대표적인 말이 '정혜쌍수(定慧雙修)' 이다. 정과 혜를 둘로 보고 닦는 것을 말하는데, 정은 선정의 힘을 키우고, 혜는 지혜의 힘을 키운다고 말한다. 그러니 정만 닦아도 안 되고 혜만 닦아도 안 되며, 정과 혜를 같이 닦아야 한다고 정혜쌍수를 주장한다.

그러나, 6조는 〈단경〉에서 '정과 혜가 다르다고 하지 말라' 고 한다.

"반드시 미혹하여 정과 혜가 다르다고 하지 말라. 정과 혜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다. 곧 정은 이 혜의 몸이요, 혜는 곧 정의 작용이니, 곧 혜가 작용할 때는 정이 혜에 있고, 또 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혜가 정에 있느니라."

정과 혜는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 한다. 정은 혜의 몸이고, 혜는 정의 작용이라 한다. 6조는 정과 혜가 하나이니 둘로 보게 되면 법을 둘로 보는 양변에 떨어져 삿된 소견에 집착하게 된다고 한다. 즉, 부처님 법은 하나인데, 둘로 보게 되면 입으로는 선(善)을 말하면서도 마음이 선하지 못함과 같다는 것이다. 법(法)을 둘로 보면 두 법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니 양변의 분별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6조는 〈단경〉에서 이를 엄중히 경계한다. 깨달음을 수행하는 것은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으니 만약 다툰다면 미혹한 사람으로 승부를 끊지 못하고 상(相)에 집착한 것이다.

까닭에 우리 선문에서 흔히 듣는 '정혜쌍수' 라는 말은 정과 혜를 둘로 보는 견해이니 〈단경〉의 종지에 맞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혹 교학에서는 '정혜쌍수' 를 주장할 수 있다. 교학은 달과 손가락, 법과 방편을 나눠 손가락, 방편을 적극 활용하는 입장이니 방편으로 본다면 '정혜쌍수' 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선에서는 '정혜쌍수' 라는 말은 본래성불의 종지에 어긋나니 온당치 않다.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명상에서도 위빠사나를 닦아 사마타로 완성한다 하거나 사마타를 닦아 선정의 힘을 키워 위빠사나를 닦아 지혜의 힘을 완성한다는 식으로 말한다. 〈단경〉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견해도 방편이지 법은 아니다. 정의 사마타와 혜의 위빠사나를 다르다 하거나 선후로 나눠보는 것은 벌써 양변에 떨어지는 것이니 방편, 손가락의 입장이지 법은 아니다.

결국 정과 혜를 나눠 둘로 보거나 위빠사나와 사마타를 둘로 보고 수행하는 입장은 양변에서 닦아가는 것이니 법이 아닌 방편이다. 부처님 법은 중도, 팔정도, 연기, 무아, 정혜다.

고우 스님, '정혜품' 깨닫고 마음이 밝아지다

지난 8월 29일 원적에 든 조계종의 대표적인 선승 고우 스님은 〈단경〉 '정혜품' 의 "도(道)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한다"는 대목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 대목을 깨치니 '백척간두 진일보' 의 뜻도 환해져 마음이 밝아졌다. 도는 돌이나 나무처럼 단단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 자유자재한 것이다. 하나에 고정되어 머물러 있으면 속박되어 자유가 없다.

6조가 〈단경〉에서 근본으로 삼은 '정혜(定慧)' 는 후대 임제종에서는 '살활(殺活)' 로 표현한다. 마음의 번뇌망상은 죽이고 지혜는 살린다는 뜻이다. 조사선이 대중화되면서 나온 간화선에서는 정혜를 '성성적적(惺惺寂寂)' 이라 한다. 마음에서 화두를 성성하게 또렷또렷하게 챙겨나가면 번뇌망상이 사라져 저절로 고요한 적적이 된다. 마음이 별처럼 또렷또렷하면서도 고요한 성성적적 삼매가 된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친 중도 삼매다. 우리도 부지런히 정혜를 밝혀 나가면 부처님처럼 지혜와 평안이 함께할 수 있다.

〈불교인재원 교수〉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⑰ 싯달타 태자의 설산 수행



▶ 한줄요약
출가한 싯달타 태자는 설산으로 입산해 아람가란과 울두람불을 만나 6년 간의 고행을 이어간다. 태자는 욕계와 색계를 넘어 바로 무색계 선정을 닦았는데 이는 전생의 수행 인연이 있기에 가능했다. 태자의 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들 라훌라가 태어났다.

설산 입산한 태자, 무색계 수행 시작

싯달타 태자의 출가는 빈 말만 붙들고 돌아온 마부에 의해 기정사실화 되고 부왕은 결국 다섯 비구를 엄선해 따라가게 한다. 태자는 욕계와 색계를 넘어 무색계의 선정을 닦는 스승을 찾아 6년 간 수행을 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림 · 강병호

마부 차닉 귀환과 가족의 미련

차닉이 보관을 가지고 돌아오니 왕이 보시고 땅에 엎어지며 우시고 구이는 말의 고개를 안고 우셨다.

오십칠장

태자의 보관(寶冠)이 오거늘 아버님 보시고 땅에 엎어지며 우시니

마부 건특이 오거늘 왕비 구이 보시고 말 고개를 안고 우시니

처음 〈석보상절〉을 읽을 때 '차닉이' 와 '건특이'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마부와 말의 비중이 다른 주요 등장인물에 못지않기 때문이었다. 결국 차닉이(Chandaka)는 출가를 하고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애마 건특이는 성으로 돌아와 목숨을 곧 마친 후 33천에 났다가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나 석가모니의 교화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태자가 사라지자 아버지 정반왕과 아내 구이는 태자의 보관과 애마의 목을 끌어안고 슬픔을 이기지 못한다.

왕이 차닉이 보시고는 태자 가신 데를 가려 하시더니 신하들이 사뢰었다.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서 추심(推尋)하겠습니다"하고 모두 추심하여 가니 나무 밑에 계시거늘 바라보며 사뢰었다. 추심은 고누어 찾는 것이다.

아버지 정반왕은 싯달타 태자가 떠난 곳으로 찾아가서 데려오려고 한다. 아버지의 절절한 심정이야 오죽하겠지만 아내 구이는 말의 고개를 안고 슬피 우는 장면이 더 처연하다. 그것을 본 신하들이 찾으러 가겠다고 한다.

여기서 추심은 '곤가 찾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곤가' 는 처음 듣는 낱말이라 이리저리 찾아보았다. 추심(推尋)은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냄' 이라고 정의되고 '인물추심' 은 '도망한 사람을 샅샅이 더듬어 찾음' 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곤가' 는 '고노다' 를 기본형으로 보는데 '꼲다' 라는 의미이다. 이 단어도 생소하다.

'꼲다' 는 '꼬느다' 라고 나오고 △'무게가 좀 나가는 물건의 한쪽 끝을 쥐고 치켜들어서 내뻗치다' △'마음을 잔뜩 가다듬고 연필 따위를 힘주어 쥐다' 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리하여 현대에 남아 있는 '꼬나 보다' 라는 말의 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없이 쓰던 말의 뿌리는 이토록이나 깊어 사유에 사유를 거듭해야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두를 종합하면 '곤가 찾다' 는 '마음을 잔뜩 가다듬고 한쪽에 힘을 주어 샅샅이 찾는다' 는 뜻이었다. 그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뜻인 줄만 알았던 '꼬느다' 의 역사를 태자의 출가에서 재발견하는 묘미가 있다.

생로병사의 수고와 오비구

태자께서 말씀하셨다.

"은혜야 모르리오마는 네 가지 수고를 위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하시고 일어나 선인이 있는 데로 가셨다.

그 신하들이 교진여들 다섯 사람을 모아 가시는데 보살피라 하고 돌아왔다. 다섯 사람은 교진여와 마승, 마하남, 십력가섭, 가섭, 구리태자이다. 태자가 산이며 물이며 가리지 않고 다니시므로 다섯 사람이 미덥지 못해 거기서 살았다.

신하들이 가서 간곡히 정반왕이 돌아오라고 하는 뜻을 전하니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지만 나 또한 생로병사 네 가지 괴로움을 여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출가를 했노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수행하는 선인들이 있는 곳으로 떠나니 신하들은 다섯 수행자들에게 태자를 부탁하고 돌아온다. 〈석가보〉에 따르면 정반왕은 대신들의 자제를 선발해 보내고 돌아오면 집안을 멸할 것이라고 했다한다. 또 아버지의 친척 셋, 어머니의 친척 둘을 남겼다는 설도 있다.

다섯 명은 나중에 싯달타 태자가 깨달음을 얻고 처음 설법하는 다섯 비구이기도 하다. 곧 첫 제자 아야 교진여, 사리불과 목련을 귀의시킨 마승, 아라한이 된 마하남, 바부라고도 불리는 십력가섭, 석가모니의 사촌 구리 태자 등이다. 이름은 음차와 의역으로 경전마다 조금씩 다르다.

'태자가 산이고 물이고 가리지 않고 다니시니 다섯 사람이 그에게 미치거나 따르지 못해서 함께 살았다' 라는 뜻이 일차 직역이나 〈불설태자서응본기경〉에 태자를 보필하지 못하면 집안을 멸하겠다는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어 태자와 머물게 됐다는 말도 있다. 여기서 '미덥다' 라는 말이 파생되지 않았을까 하여 의역하였다.

> 욕 · 색계 넘어 무색계 선정 닦아
> 전생수행 인연 있기에 가능한 일
> 출가한 아들생각에 가족들 애끓어
> 태자, 설산서 6년간 고행을 이어가

수행자를 만나다

태자가 미루산 아람가란이라 하는 선인이 있는 데 가셔서 불용처정(不用處定)을 삼년동안 익히셨다. 불용처(不用處)는 쓰지 않는 곳이니 그것이 무소유처이다. 정(定)은 일정하다는 뜻이니 불용처의 공부에 마음을 일정하게 하므로 불용처정이라 한다.

태자가 출가하여 스승 찾아 처음 가는 곳이 미루산이다. 수미산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왕사성 밖의 아람가란 선인이 살던 산으로 볼 수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산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욕계 육천' 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산인데 그 위의 하늘인 '색계' 를 지나 '무색계' 의 선정을 닦는 수행자를 만나러 가고 있으니 말이다.

태자의 스승 '아람가란' 은 알라라 칼라마(Alara Kalama)이다. 아라라 선인(阿羅羅 仙人)이라고도 하는 수론(數論) 파의 수행자로 석가모니가 출가했을 당시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명상 스승이었다. 석가모니가 깨닫고 난 뒤에는 석가모니 교단을 따라다녔다. 싯달타 태자에게 "지혜의 배를 타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태자가 29세에 출가했을 당시, 알라라 칼라마는 120세였다. 16세에 출가해 104년째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3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한다. 선인은 외도 수행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불용처정'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욕계(欲界) · 색계(色界) · 무색계(無色界)' 라는 삼계를 알아야 한다. 오온(五蘊) 중 색(色)을 제외한 수(受) · 상(想) · 행(行) · 식(識)만으로 구성된 세계를 말한다.

이러한 무색계의 선정(禪定)에는 4단계가 있다.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 허공처럼 무한하다고 보는 경지) △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 식이 무한하다고 보는 경지)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지)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지)이 그것이다. 이것은 욕계정(欲界定), 색계정(色界定)보다 적정하며 욕망이나 물질에 대한 상념이 없게 된 경지이다.

이 무색계의 세 번째 '무소유처정' 을 '불용처정' 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쓰지 않는 곳에서의 선정' 이란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무소유의 경지를 이른다는 의미이다. '선정' 의 뜻도 멋지다. '공부에 마음을 일정하게 하는 것' , 그것이 선정이다.

그곳에서 3년 동안 수행을 했다고 한다. 도사 밑에서 물긷기 3년, 땔나무하기 3년 하는 옛날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런데 태자는 왕궁의 성을 넘어 출가하자마자 욕계와 색계를 넘어 무색계에서도 맨 마지막 3단계부터 수행을 시작하고 있다. 무수한 전생의 수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고, 이미 그 단계를 뛰어 넘어 세간의 중생을 교화하러 오신 분이기에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 울두람불이라 하는 선인이 있는 데 가셔서 비비상처정(非非想處定)을 삼년동안 익히고 생각하셨다. '선인의 일이 큰 번뇌(結)야 없지마는 생사를 벗어날 도리가 아니로다'하시어 버리고 가셨다. 결(結)은 얽매인다는 뜻이니 큰 번뇌에 매여 자득(自得)하지 못하는 것이다. 울두람불에게 오고 가실 때 부처의 나이 스물 둘이시니 주나라 소왕 47년(B.C.949년) 을해이다.

울두람불은 태자가 아람가란 선인을 떠나 왕사성 곁에서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의 선정을 가르친 스승이다. 울두람자(鬱頭藍子), 우타라라마자(優陀羅羅摩子)라고도 한다. 〈증일아함경〉에 의하면 태자가 정각을 이루고 처음 법을 전하려 하였으나 죽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다섯 비구를 처음으로 제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색계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비상비비상처' 의 선정을 닦았음에도 생사를 벗어날 도리가 아님을 깨닫고 그 스승을 떠난다. 무색계의 선정을 닦아도 남아 있는 결업(結業) 곧 번뇌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얽매이게 한다는 것이다.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오십팔장

아람가란에게 태자가 무소유처 선정(不用處定)을 삼년 익히시니

울두람불에게 비상비비상처 선정(非非想處定)을 삼년 또 익히시니 〈월천21b〉

사실 이들은 외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태자는 극도의 고행과 '수하항마' 끝에 정각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무색계의 끝 단계인 수행도 아득한데 거기서도 정각을 이루지 못한다니 내가 범부인 것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다가 차라리 다행이라고도 생각이 든다.

이렇게 6년간의 고행을 하고 있을 때 구이(야수다라)는 라훌라를 출산한다. 출가 후 6년이 지난 뒤 일어난 기적 같은 일에 석가의 종족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일일시호일

13년 한국 생활에
남은 건 암덩이와 빚더미

봉제공장서 근무한구룽시타씨 부부…사기당해 건물서 쫓겨나
직장암 수술 앞둬…검사비만 500만원 병원비는 알 수 없어 암담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코로나19 팬데믹, ‘불교경제’ 가는 단계”

〈불교경제학〉 펴낸 클레어 브라운 인터뷰 화제

박정현 객원기자



부의 불평등, 기후변화 등 인간 사회의 경제학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들을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클레어 브라운(Clair Brown)〈사진〉이 최근 펴낸 저서 〈불교경제학: 암울한 과학에 대한 계몽적 접근〉은 이러한 궁금증에서 출발한다.

클레어 브라운은 9월 6일 책 발간 기념 ‘하버드 폴리티컬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불교의 평등사상과 인간과 환경 간 상호 의존성을 중시하는 가르침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의 경우 ‘불교 경제학’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클레어 브라운의 설명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 ‘경제학’과 ‘불교 철학’의 접목이 생경하다. 어떻게 처음 두 학문을 결합할 생각을 했나. 또 저서 ‘불교경제학’을 펴낸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 미국 사회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규제 완화는 단지 시장의 규칙을 ‘정부’로부터 ‘대기업’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 · 의약품 ·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신산업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 대기업이 거대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현 경제 구조 탓에 역설적이게도 경제학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특히 나는 불교신자로서 ‘상호의존’과 같은 단순한 불교적 개념으로 경제학 발전에 일조하기로 결정했다.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답이 ‘불교 경제학’에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불교 경제학은 신자유주의나 자유시장 모델이 공동선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의 ‘선(善)’을 생산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지구(인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 우리는 소수의 억만장자가 인류의 절반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한 경제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 이 기괴한 수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불교적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없다.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나아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테면 부자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부자에 대한 세금 인상이 확실히 이뤄지기 위해선 기업이 더 이상 ‘낮은 세금’을 찾아 다른 국가를 누비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세금 하한선’ 설정을 고민할 때라는 얘기이다.

△ 우리는 기후위기에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기후위기를 자초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인간과 환경 간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기후과학자들은 화석 연료 에너지를 10년에서 20년 안에 제거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부유한 국가는 화석 연료 소비를 줄여 빠르게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대체에너지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개발 과정에서 더러운 화석 연료 에너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유한 국가는 대체에너지 개발 기술과 개발도상국에게 이를 전가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상호적 재생 경제와 같다.

△점점 더 현대인들의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현대 경제의 근본적 결함이라고 생각하나.

물질주의의 폐해다. 만약 여러분이 충분한 돈을 가지지 않은 채 경쟁이 치열한 노동 시장에서 산다면 그 폐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덜 일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면 일과 가족이 더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것이다. 재택 근무가 보편화되며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혼자 사색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깨닫고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탐구하는 것. 이것은 ‘불교 경제’로 도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中, 달라이라마 사진 금지 및 단속 나서

100명 이상 체포, 시진핑 사진 배포해

최근 중국당국이 티베트 자치구 등지에 거주하는 티베트 인의 달라이라마에 대한 신심을 단속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자유 아시아 방송(RFA)’과 ‘ANI 뉴스’ 등의 외신들은 중국이 순회단속으로 티베트 인들이 체포됐고, 달라이라마의 사진을 금지하는 등의 정치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현지 소식통과, 인도에 망명중인 티베트인 공동체들의 정보를 인용하여 8월 25일 단속이 시작된 이래 이미 100여 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전했다. RFA에 정보를 제공한 현지 소식통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주말을 이용해 공안이 급습했다. 열아홉 분의 스님과 40명의 일반인들이 달라이라마의 사진을 소지했거나, 외국과 연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이 이뤄진 곳은 칭하이성의 쎄르슐 지구와 쓰촨성의 까르제 지구로 두 지구 모두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는 소신공양, 혹은 시위가 있었던 곳이다.

소식통은 “공안 당국은 가옥의 청소와 소독을 명목으로 노인들이 사는 가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달라이라마의 사진을 압수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사진을 배포하고 거실이나 불단 가까이에 걸어 둘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소식통은 “18세 이상의 청장년층의 경우 소지한 사진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고 있다. 중국 밖에 거주하는 티베트인이나 외국인과 연락한 내용이 발각되면 모두 지역사회의 정보를 외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체포되고 있다. 공안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시 단속으로 티베트인들이 체포된 쎄르슐 지구와 까르제 지구. 사진출처=RFA

한편 까르제 지구의 자왕뽀 사원에서는 스님들에 대한 정치 및 애국교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했다. RFA는 “현지의 제보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스님들은 매일 20명씩 모여 공안에 소재를 신고하고 정치활동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왕뽀 사원의 스님들은 이미 2012년, 사찰에 중국 국기를 게양하라는 공안의 요구를 거부하고, 독립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일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한 스님이 고문후유증으로 입적했다.

현지 소식통은 “자왕뽀 사원 뿐만 아니라 여러 사찰, 직장, 학교 등에서 정치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젊은 티베트 인들의 신행활동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日가업 사찰 문제점에 일본사회 ‘들썩’

야후재팬, 일본 승단 문제 특집 보도

원치 않는 출가로 인한 자질 부족인 승려 많아

비구승단이 주가 되어온 한국불교와 달리 일본불교는 출가자가 결혼하여 가업으로서 사찰을 대물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러한 대를 잇는 사찰과 승단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출가자의 자질 부족이나,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출가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9월 5일, 일본의 주간지 ‘토요 게이자이(東洋經濟)’와 ‘야후재팬 뉴스’는 승단 내부의 문제에 대한 고백을 특별보도했다.

몇 대째 대를 이어오고 있는 모 사찰의 장녀로 태어난 S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승단의 문제나 사찰의 내부 실태가 공개되면 많은 신도들이 환멸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고백했다. S씨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 스님들은 인격이 완성된 사람으로 보이고, 사찰은 매우 평화롭고 조화로워 보이겠지만, 아닌 경우가 많다”라며 자신의 집안인 사찰을 예시로 내부사정을 이야기했다.

현재 일본불교에서는 출가자라는 지위가 가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른 사찰이나 토지, 신도 등이 사유재산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절의 아이’로 태어난 아이들이 가업을 잇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드물다. S씨는 “특히 나와 같이 자매로만 자식이 없는 사찰의 경우 더욱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더욱이 진로와 진학에 있어서도 거의 자유가 없다고 전했다. 실제 S씨는 “스님인 아버지와 조부는 물론 신도들에게도 사찰을 잇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부모님은 “진로는 스스로 생각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종립대학에 갈 것을 은근히 권유하거나 사중의 일을 담당하게 하는 등 다른 진로가 없이 살아왔다”고 말했다. 마치 자신이 출가하지 않으면 집안이 망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되며, 심지어는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사찰의 후계를 위해 부모의 제한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고백했다.

S씨와 같은 종립대학에 진학한 다른 여성 후계자들은 “아직까지 사찰은 남성이 잇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강하기에, 여성만 있는 사찰의 경우 종립대학에 진학하면 ‘다른 사찰의 차남이나 삼남을 사위로 데려오라’는 말을 부모나 신도에게서 듣는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찰을 이어야한다는 정신적 폭력으로 고통 받았고, 성별에 관계없이 이런 압박을 받는 젊은 후계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러한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출가자의 자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전했다. 사찰, 혹은 같은 종단이라는 좁은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또래와의 접점이 부족하고, 사찰을 이어야한다는 부담감이 강한 탓이다. S씨와 같이 사찰의 후계자로 성장한 이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집안에서의 어려움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도 ‘절의 일은 잘 모르겠다’며 공감을 하지 못하는 데서 큰 고독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실제 이러한 환경 속 절의 주지스님들의 경우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했다. 또한 스님이라는 신분상 자신의 현황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고 이들은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 테러리스트’ 위라투 석방

석방 뒤 병원 치료 받는 것으로 알려져



미얀마 군부가 ‘불교계 빈라덴’이라고도 불리는 극우불교성향 승려 위라투(53 · Wirathu)〈사진〉를 석방했다고 ‘BBC’가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이날 “위라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취하한 후 그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라투는 석방 후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떤 건강상의 문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라투는 과거 2012년 보궐선거 당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지지 세력이었으나,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이견으로 선거 직전 수치 여사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후 위라투는 로힝야족에 대한 비난을 일삼았고, 2017년 1년 간 설교 금지를 명령받았다.

그러나 위라투는 설교 금지령이 해제된 후에도 수치 여사와 로힝야족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종교적 증오를 조장한다는 혐의로 구금된 바 있다.

미국의 타임스는 2015년 11월 위라투를 표지 모델로 내세우며 ‘불교 테러리스트’라고 명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약왕보살 전신의 소신공양
〈前身〉 〈燒身〉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㉞ 약왕보살본사품

그때 수왕화(宿王華)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약왕보살이 어떤 보살입니까? 약왕보살은 얼마나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겪었습니까?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간략히 설명해 주시옵소서. 모든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와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인 듯하나 아닌 이들과 또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들과 여기 있는 성문의 무리들이 들으면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이 때 부처님이 수왕화보살에게 이르셨다.

"과거 한량없는 항하 모래알 수만큼의 겁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일월정명덕 여래이셨느니라. 그 때 그 부처님께서 일체중생희견(一切衆生喜見)보살을 비롯한 여러 보살들과 성문들을 위하여 〈법화경〉을 설하셨느니라. 일체중생희견보살이 고행을 좋아하여 일월정명덕(日月淨明德)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정진하고 수행하여 일심으로 부처가 되기를 구하여, 1만2000년이 된 뒤에 현일체색신삼매(現一切色身三昧)를 얻을 수 있었느니라. 이 삼매를 얻고 나서 크게 기뻐하여 곧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현일체색신삼매를 얻은 것은 모두 〈법화경〉을 들은 힘 때문이니 내 이제 일월정명덕부처님과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그리고 곧 이 삼매에 들어가자 허공에서 만다라화와 마하만다라화와 검은 전단 가루를 비 내리듯 쏟아 내리니 그것이 허공에 가득하여 구름처럼 내려왔다. 이 향으로써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일체중생희견보살이 공양을 마치고 삼매에서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였느니라.

'내가 비록 신통력을 나타내어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나 몸으로써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리라.' 하고, 곧 여러 가지 향인 전단향, 훈륙향, 도루바향, 필력가향, 침수향, 교향 등을 먹고, 또 첨복(簷蔔)의 꽃 등 여러 가지 꽃에서 짠 향유를 마시기를 1200년이 지나도록 마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또 향유를 몸에 바르고 일월정명덕부처님 앞에 나아가 하늘의 보배 옷을 몸에 두르고 향유를 붓고 나서 신통력으로 서원을 세워 스스로 몸을 불사르니, 그 광명이 80억 항하 모래알 수의 세계를 비추었느니라. 그 세계에 계시던 부처님들이 이를 보고 한꺼번에 찬탄하면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도 훌륭하도다. 선남자여. 이것이 진정한 정진이며, 이것이 바로 여래에게 참되고 법답게 공양하는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약왕보살본사품' 중에 나오는 내용의 하나다. 수왕화보살의 물음에 부처님이 약왕보살의 전신(前身)이었던 일체중생희견보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무수 겁 전의 일월정명덕여래가 출현했을 때의 이야기다. 과거 겁 전의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가 〈법화경〉 안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초시간적이고 초역사적인 이야기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설해지는 것이다. 모두 구원실성(久遠實成)의 뜻을 담고 설해지는 이야기다.

〈법화경〉을 들은 공덕으로 '일체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를 얻은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부처님께 꽃공양 향공양을 올리고 다시 소신공양(燒身供養)을 한 사례를 소개한다. 향유를 마시고 또 몸에 바른 뒤 온몸을 태웠다는 이야기다.

이 소신공양이 상징하는 뜻은 몸을 태워 일신을 버리고 불법을 소중하게 여겨 목숨을 바쳐 도를 위했다는 신심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다. 〈범망경〉에는 보살도를 닦는 이는 몸을 태우거나 팔, 손가락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해야 한다는 말이 설해져 있다. 〈능엄경〉에는 불상 앞에서 손가락을 태워 숙세의 업장을 소멸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법공양의 참뜻을 밝힐 때도 약왕의 소신공양의 이야기를 인용하기도 한다.

약왕보살은 본래 중생의 몸과 마음에 생기는 병을 없애 주겠다는 서원을 세운 보살이다. 약사여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약왕이라는 부처님의 명호도 있다. 〈유마경〉에 나오는 비사사여래가 약왕여래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선종, 불성사상 바탕 둔 범망보살계 중시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㉞ 무상계(無相戒)

동아시아인들은 보리달마(菩提達磨)를 비롯한 선사(禪師)들을 '모든 형식이나 격식을 벗어나 궁극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이미지로 인해 선사들은 깨달음을 중시한 나머지 계율을 경시할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초기 선종(禪宗)에서는 불성 사상에 바탕을 둔 범망보살계(梵網菩薩戒)를 중시했으며, 독자적인 보살계와 수보살계의(授菩薩戒儀)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널리 유행했던 범망계를 수용했지만, 점차 그 세력이 커지면서 새로운 보살계와 그것을 줄 때 일정한 의식작법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육조(六祖) 혜능(惠能)의 언행을 기록한 책인 〈육조단경(六祖壇經)〉은 동아시아에 널리 유포되어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수많은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돈황본 〈육조단경〉에는 보살계인 무상계(無相戒)와 그것을 줄 때의 의식작법인 오문계의(五門戒儀)가 소개되어 있다. 사실 이 책은 자사(刺史) 위거(韋璩)의 청에 응해 혜능이 소주(韶州)의 대범사(大梵寺)에서 수계(授戒)를 거행할 때 행한 설법을 기록한 것이다. 다시 말해 혜능이 출·재가자를 막론한 모든 불자에게 보살계인 무상계를 줄 때 행한 설법이다.

무상계를 줄 때의 의식작법인 오문계의는 ①귀의자삼신불(歸依自三身佛)의 삼창(三唱), ②사홍서원(四弘誓願)의 삼창(三唱), ③무상참회(無相懺悔)의 삼창(三唱), ④자성삼귀의계(自性三歸依戒), ⑤반야바라밀법(般若波羅蜜法)이다. 물론 여기에 소개된 오문계의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보살계의의 양식에 의한 것이겠지만, 이 의식작법은 매우 간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여기에는 일반적인 보살계의의 중심이 되는 삼취정계(三聚淨戒)나 십중금계(十重禁戒)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불교학자인 야나기다 세이잔(柳田聖山)은 오문계의 가운데 삼신불(三身佛)은 통상의 삼신불과는 순서가 다르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삼신불은 청정법신불(淸淨法身佛), 천백억화신불(千百億化身佛), 당래원만보신불(當來圓滿報身佛)이다. 그는 이 부분을 다른 계의(戒儀)에서 청사(請師)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도안(道安)이 맨 처음 제창한 식전주원(食前咒願)의 십불명(十佛名)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즉 십불명 가운데 최초의 청정법신비로자나불(淸淨法身毗盧遮那佛)과 두 번째의 원만보신노사나불(圓滿報身盧舍那佛)을 일괄해서 청정법신불로, 세 번째의 천백억화신석가모니불(千百億化身釋迦牟尼佛)을 천백억화신불로, 네 번째의 당래하생미륵존불(當來下生彌勒尊佛)을 당래원만보신불로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삼신불을 청해서 수계의 계화상(戒和尙)이나 아사리(阿闍梨)가 되게 하는 발상은 기존의 전통을 새롭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삼신불의 순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의미도 이전과 다르다. 청정법신불은 태양과 구름에 비유되는데, 청정한 자성(自性)은 번뇌에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청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깨닫는다면 일체 법이 본래 청정한 자성에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청정법신불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천백억화신불은 중생을 제도하는 화신불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선하게 하여 지혜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당래원만보신불은 등불에 비유되는데, 등불이 어둠을 제거하고 지혜가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과 같이 지금의 한 생각이 올바른 것을 보신이라고 한다. 따라서 삼신불은 모두 자성에서 비롯된 하나의 자성불(自性佛)인 줄 알고 귀의하는 것이다. 사실 스스로 삼신불에게 귀의하는 단계에서 청사(請師)와 수계(受戒)가 이미 완료된 것이어서 자수자서(自受自誓)의 경향이 강한 대승계의(大乘戒儀)라고 할 수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⑩ 이 생서 꼭 해야 할 천명(天命)

분별없이 자기 마음 바로 보아야

부처님의 깨달음은 부처님만이 아신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무상정등각은 성문, 연각, 보살의 삼승(三乘)은 알 수가 없습니다. 3차원을 살고 있는 중생이나 4차원을 살고 있는 중생으로서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묘법연화경〉 '방편품 제2'에서 "내가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의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모든 법을 설명하여 말하지만 이 법은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분별하는 바로는 능히 알지 못하며, 오직 모든 부처님만이 계시어 이에 능히 아시느니라." "사리불 같은 이가 세간에 가득 차서 생각을 다하여 함께 추측하고 헤아릴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능히 측량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지견은 중생의 분별로는 헤아릴 수 없는 무량광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이 깨달음을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이라고 합니다.

나의 참 모습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무상정등각의 진리는 나의 참모습이며 삼라만상 우주 만물의 근원입니다. 나와 일체 세계는 모두 이 근원에서 연기하여 나타난 것이기에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모두 부처 아님이 없습니다. 이 진리의 당체를 불교에서는 법체, 진여, 법신, 불성(佛性), 일심, 한마음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모든 명칭은 모두 언어적 방편일 뿐입니다. 언어에 속지 말고 이 불생불멸의 영원한 진리의 당체를 바로 깨쳐야 합니다. 이 진리 당체를 깨닫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룩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사명(使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 역시도 바로 이 진리의 당체를 깨치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부처님 깨달은 무상정등각 영원한 진리
무위의 중도만이 깨달음 성취할 수 있어

모든 분별 멈추고 자기 마음 바로 보아야

불자 여러분! 그 당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의지해서, 어떤 수행 방편으로써 무상정등각의 깨달음을 성취하셨을까요? 그것은 특별한 수행법이 아니었습니다. 함이 없는 중도적 실천으로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분별이 없고 조작함이 없는 무위의 중도만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무위의 중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작함이 전혀 없이 분별없이 그냥 그대로 또렷이 자기 마음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조사님들께서는 "식심견성(識心見性) 자성불도(自成佛道)" 즉 자기 마음을 바로 알고 자기의 본성을 바로 보아야 스스로 불도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허망한 자기 마음을 정신 차려서 분별없이 올바르게 들여다 보십시오. 예로부터 수많은 조사스님들께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중생심을 여의지 않아야 된다"고 조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비록 허망하지만 중생의 마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분별을 모두 멈추고 조작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 보기만하면 됩니다.

분별이 멈추고 조작함이 없어지고 고요와 또렷함이 조화를 이룰 때, 중생의 지견이 멈추고 무량광의 분별없는 지혜가 나타납니다. 이때 발현되는 무량광의 무분별지혜는 무엇으로도 이름 붙일 수 없고 표현될 수 없습니다. 특히 3차원의 인식과 4차원의 분별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경지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부터 오온에 대한 집착을 끊고, 복락을 기원하는 불자가 되지 말고, 세상에 태어난 일대사인연을 바로 알아 실천하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무상정등각을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56호 | 17 | 전면광고

겸허하게 지내고 스스로를 낮추며 만족을 알고
은혜를 생각하며 때때로 법을 듣는 것, 이것이
최상의 좋은 일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취득 동참 안내

◆ 포교사, 전문포교사 ◆ 법사, 전문법사
◆ 법계분야 - 대종(선)사, 대사, 종사, 율사, 종무사, 종신사, 종학사, 교학사
◆ 포교계위, 법사법위, 종법성위증 부여
◆ 제출된 서류로 평가심사 취득가능
교육부 상학인가 만대 불교학대학원
한국불교수행자연합회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010-5412-8040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보시금 35만원
010-2204-8375

天門祕法전수

백운곡 저서 100여권
◆ 장애스님 무료 ◆
◆ 대학역학교수 3명 엄선 ◆
Daum 역학대통령 ▼ 최다목록 무료검색
Tel. 02)907-5858

★검색★

G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 • •
공양주 보살님
관리(운전)처사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65세 이상
숙식필수(월4일 휴무)
초보자 환영/ 중국교포 환영
• • •
010-4253-9110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8352-6042

• • •
서울에 있는 사찰입니다.
인연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5세 이하
• • •
010-8721-2198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불교의식 학인모집

• 천도재, 49재, 사시불공 등
• 북, 징, 경쇠, 요령, 목탁
• 매주 일요일 오후3시 실용강의
• 승속 무관 수강 가능
영남범음범패 조은사 (경북 경산시내)
010-5315-3589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모든지

성취시키는 기도법을 전수 (승려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이름으로 사주 풀이법

◈◈ 절간 특별비법 · 타로 ◈◈
*신을 모셔도 말문 못여신 신제자님 특별우대
*스님 · 무속인 환영
문의전화 010-6284-617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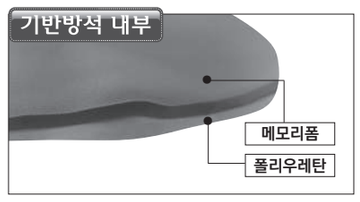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56호 | 18 | 전면광고

자신의 죄와 업장이 산과 바다처럼 많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이 죄와 업장을 몸과 마음을 다해 참회하여 없애야 할 것임을 잘 알아야 하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계초심학인문》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부지 : 3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협의

◎위치 : 경기
◎부지 : 150평
◎건평 : 120평
◎신도시중심
◎매가 : 9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올창, 편백나무 5천그루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가액 : 11억

010-4547-0023

기도 도량 안내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가액 : 4억(협의가능)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사찰(급)안내

●위치 : 부산 동래구
●부지 : 1천평(또는 4백평)
●가액 : 상담(방문)후 결정
●부산 최고 명당자리
●전시컨벤션 ●복지시설

010-2822-1080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산청군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사 찰 안 내

●위치 : 감곡kt에서7분거리
●대지 계획관리 550평 요양원 및 별장으로 공사했습니다
●사찰, 요양원, 최고급 펜션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010-5883-2255

사 찰 안 내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대지 : 350평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가액 : 4억 8천만원 (절충가능)

010-7710-8334

암자·굿당 (급) 안내

●위치 : 삼도봉 맞은편 경상도 쪽 형제봉 중턱 ●대지 : 종교용지 250평 실사용 약 500평 ●건물 : 한옥기와집 2채 약 60여평 새집 ●정남향 폭포 계곡 사철물 콸콸 ●도로 아스팔트 8m 대형버스 다님 ●가격 보신후 결정 시세이하 저렴함 ●주인 직접 부동산 일체 사절합니다.

010-5882-2452(총무님)
010-5807-2452(스 님)

좋은 암자터 안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전철 역에서5분거리
●토지670평, 국유림 야산아래 남서향 양지 밝은곳, 전망이 내려다보여 경치가좋음, 야산에 둘러싸여 조용함
●가액 3억3천만원(평당49만원)
●주인직접

010-3531-5562

양산사찰(급)안내

●종교용지, 대지218평
●건평 : 1층요사42평, 2층슬라브 42평중, 대웅전26평, 산신각
●심야전기, 지하석수1일150톤 이상, 양산시상수도, 하수도 종말처리, 집기일체포함, 현재성업중
●건강상 싯가이하로 양도합
●가격 : 절충

010-6425-8274

포 교 당 안 내

●위치 : 서울 연신내 지하철 옆
●약 10평, 반지층, 임법당
●방2개, 거실1
●법당(시설 일체) 인수 가능한 분, 절충가능
●보 500만, 월 50만
●개인사정으로 양도합

010-5399-1225

사 찰 안 내

●울산
●대지 149평
●대웅전 1동 20평
●요사채 17평, 요사채 10평
●도시가스
●가액 : 6억 5천만원

010-3811-5466
010-3576-2015

암 자 안 내

●위치 : 서울 종암동
●대지 약 90평
●공시시가 절반가 수준
●초급매
●가액 : 4억 5천

010-3184-5362

사 찰 안 내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건평 70평(법당,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시설완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9015-4040
010-2077-7820

토 굴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 강남권 45분
●스님토굴, 전원주택형 수익성 양호
●대지 210평, 건평 40평
●긴 복도형, 지열, 난방비 최소, 3백년 느티나무, 불자
●가격협의

010-6285-3703

포 교 원 안 내

●위치 : 영천 시내 멋진 법당
●2층 72평, 완벽한 시설, 방3칸, 주방, 화장실, 넓은 옥상, 앰프시설 완비, 방음 완벽, 민원도 없음
●보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9377-2279

별장토굴

●위치 : 경북 봉화 소천면
●대지면적 약 전체 2800평
●정리된(벌목) 임야 약 2천평 (지목 대지 포함)계곡접하고 있음, 국유지 300만평 접합
●건 물 : 없음
●가 액 : 6천만원

010-4124-7788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부지102평, 구조 2층 법당 15평, 생활관 1층 33평, 화장실2평
●가액 : 1억

010-4156-3779

사찰 안내

●대지 1,700평, 법당 60평
●관음전 60평, 약사전 100평 기도원 40평, 공양실 100평
●납골당, 지장전, 원두막, 종무소
●폭포가 있는 절(김천지역)
●가액 : 23억(대출 5억)

010-4547-0023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부산시 서구 충무로 (전통시장내)
●2층 83평(법당 43평, 요사채 40평)
●모든시설 완벽(몸만 오시면 됩니다)
●보증금 4천만원, 월 38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3508-9321

사 찰 안 내

●위치 : 대전 중구 보문산 5거리 (당산나무옆 2층)
●제반시설 : 삼불전, 약사전, 요사채(2) 42평
●시설권리금 : 1천5백만(바로 법회 가능)
●임대보증금 : 3백에 월 30만원, 절 이전으로 시설권리금을 저렴하게 책정하였음.
●서기가 있어 영험한 기도도량입니다.

기도가 아름다운 절 보문산 지장사
주지 무진 010-3049-5816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릴렉스(relax)

명상의 비결을 알려 드릴까요? 릴렉스 입니다.
마음을 여는 비결을 알려 드릴까요? 릴렉스 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 드릴까요? 릴렉스 입니다.
잘 살고 잘 죽는 비결을 알려 드릴까요? 릴렉스 입니다.
모든 좋은 마음의 상태는 릴렉스가 있어요. 릴렉스가 자비와 지혜와 알아차림의 관문입니다. 릴렉스가 뭡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순간, 생각이 놓아지고 알아차림이 있어요. 릴렉스 + 자각 = 명상
안식속에 릴렉스
이식속에 릴렉스
비식속에 릴렉스
설식속에 릴렉스
신식속에 릴렉스
의식속에 릴렉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면서 마음은 편안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릴렉스!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⑰ 월광백(月光白)

달빛과 바람만으로 말린 차

하늘에는 늘 기적이 펼쳐지는데 인생의 기적은 언제 일까요. 구름 사이로 유난히 푸른 하늘이, 달이 뜨고 달이 지고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노을이 붉었다가 별들이 반짝이는 저 하늘이 너무 신비로워서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많아집니다. 어렸을 때 읽은 헤르만 헤세의 시에서 '이상하다, 안개 속을 거니는 것은. 모두가 혼자다.' 라는 시가 인상 깊었는데, 밤하늘을 바라보며 고요히 앉았노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밤의 숲속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낮에는 들리지 않던 우주의 소리가 동그랗게 파문을 그리며 점점 커져서 나는 먼지만해지고 우주의 소리만 남은 그 자리에 눈을 뜨면 커다란 보름달이 하늘에 낙관을 찍듯이 딱! 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9월에 소개해 드릴 차는 '월광백' 입니다. 하얀 달빛 아래서 찻잎을 따고 말려서 만든 차라고하여 월광백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달빛차' 라고 하면 어울릴까요. 수색은 달빛처럼 은백색이며, 향은 우아한 꽃향과 이슬 머금은 풀향과 아스라한 약향이 차례로 흩어지고, 맛은 백차의 청량감에 홍차의 감미로움을 더한 듯 풍부하며, 여운 또한 달빛처럼 은은함 속에 보이차의 깊음을 감추고 있는 차입니다.

차는 찻잎을 우린 수색에 따라 녹차, 백차, 황차, 청차, 홍차, 흑차의 6종류로 나눕니다. 이를 6대다류라고 하는데, 월광백은 6대다류 중 어디에 속하는 차일까요. 월광백은 보이차 산지인 윈난



월광백.

경곡(景谷)의 대엽종 찻잎으로 만들기에 보이차의 별종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월광백은 백차의 한 종류로 분류해야 합니다. 경곡의 대엽종 찻잎은 표면에 백호(하얀솜털)가 발달하고 찻잎이 통통하여 백차를 만드는데 적합할 뿐 아니라 월광백 역시 백차를 만드는 방법 즉 찻잎을 따서(채엽) 시들려서(위조) 말리는 과정만 있을 뿐 불에 덖거나(살청) 비비는(유념) 과정이 없이 제다하여 백차의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차와 월광백을 만드는 가장 큰 차이는 찻잎을 말리는 방법입니다. 보이차는 후발효차이기 때문에 찻잎을 햇볕에 말려야만 발효균이 살아서 발효가 진행됩니다. 햇볕에 말리는 것을 쇄청이라고 하는데, 보이차가 만일 쇄청을 거치지 않고 대형공장에서 열풍 건조기로 말렸다면 그것은 보이차가 아닙니다. 반면 월광백은 햇볕을 쐬지 않고 달빛과 바람으로만 말립니다. 월광백이 만일 당나라 때에도 있던 차라면 달을 사랑한 시인 이태백이 아마 수많은 차시(茶詩)를 남겼을 거예요.

월광백은 1990년대 타이완의 저우런즈라는 사람에 의해 개발된 신종차입니다. 사실 월광백이 정말 달빛과 바람으로만 말렸는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이름만으로도 유명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싱잉볼이라는 티벳의 명상그릇도 보름달이 뜬 밤에 제작한 것은 풀문 싱잉볼이라고 해서 가격이 훨씬 비싸더군요. 달빛의 상상력이 사람의 마음 깊은 속을 건드리기 때문인가 봅니다. 현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차 가운데 개성 있고 좋은 차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월광백으로 백차계열의 차이며, 다른 하나는 동방미인으로 홍차계열의 차인데 맛과 풍미도 좋지만 특히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차입니다.

월광백은 찻잎도 아름답습니다. 싹에서 잎이 한 잎 펼쳐진 1아1엽으로 만드는데 백호가 발달한 찻잎(싹, 아엽)의 겉면은 하얀 빛이 돌고, 백호가 없는 찻잎의 속면은 검은 빛이 돕니다. 희끄무레 하거나 거무스름한 것이 아니라 흑백이 분명한 반전의 찻잎입니다. 마치 달이 앞면은 희게 빛나고 뒷면은 검어서 흑백이 분명한 위성인 것과 닮았습니다.

최상품 월광백은 얼핏 보면 백호은침과도 닮았습니다. 복정의 백호은침은 싹이 짧고 도톰하며, 정화의 백호은침은 싹이 가늘고 길며, 운남 경곡의 대백호는 싹이 크고 두툼하며 대엽종입니다. 그래서 월광백도 보이차처럼 묵혀서 마시면 좋아요. 오래될수록 깊고 향기로운 월진월향(越陳越香)의 마법이 월광백차에도 적용됩니다.

보름달이 밝은 밤에 가족이 모여 차를 마시는 광경을 상상해봅니다. 어느 가족이나 흑백이 있겠지요. 빛남도 있고 그늘도 있겠지요. 월광백을 마시며 빛남과 그늘이 조화를 이루는 묘미를 느껴보면 어떨까요.

월광백을 우립니다. 1) 개완(뚜껑이 있는 찻그릇)이나 자사호를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차는 큰 찻주전자에 우리면 맛이 없습니다. 작은 개완이나 자사호에 여러 번 우려 마시는 것이 향을 잘 품어줍니다. 2) 찻그릇에 3-4g의 찻잎을 넣고 윤차(潤茶)합니다. 세차(洗茶)라고도 하는 이 과정은 찻잎에 물을 부었다가 바로 따라내어 버리는 과정인데, 마른 찻잎을 정갈하게 적셔서 깨우는 과정입니다. 3) 윤차한 찻잎에 90-95도씨의 물 120-150ml 을 넣습니다. 이때 뜨거운 물을 찻잎에 바로 부으면 찻잎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찻그릇 주위를 빙그르르 돌려서 물을 살며시 따라 넣습니다. 4) 30초 후에 1포(한 번 우린 차)를 마십니다. 차츰 시간을 늘려가며 8포정도 우려 마십니다.

차의 맛은 차를 우리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차가 맛있다면 차를 우리는 사람이 사랑을 듬뿍 담았을 거예요. 월광백의 효능은 머리를 맑게 하고 피부미용, 피로회복, 청량해열, 신진대사 촉진 등인데, 차를 우리는 사람의 사랑과 선한 마음만큼 더 큰 효능이 있을까요? 차가 전해주는 선한 영향력, 그것이 바로 인생의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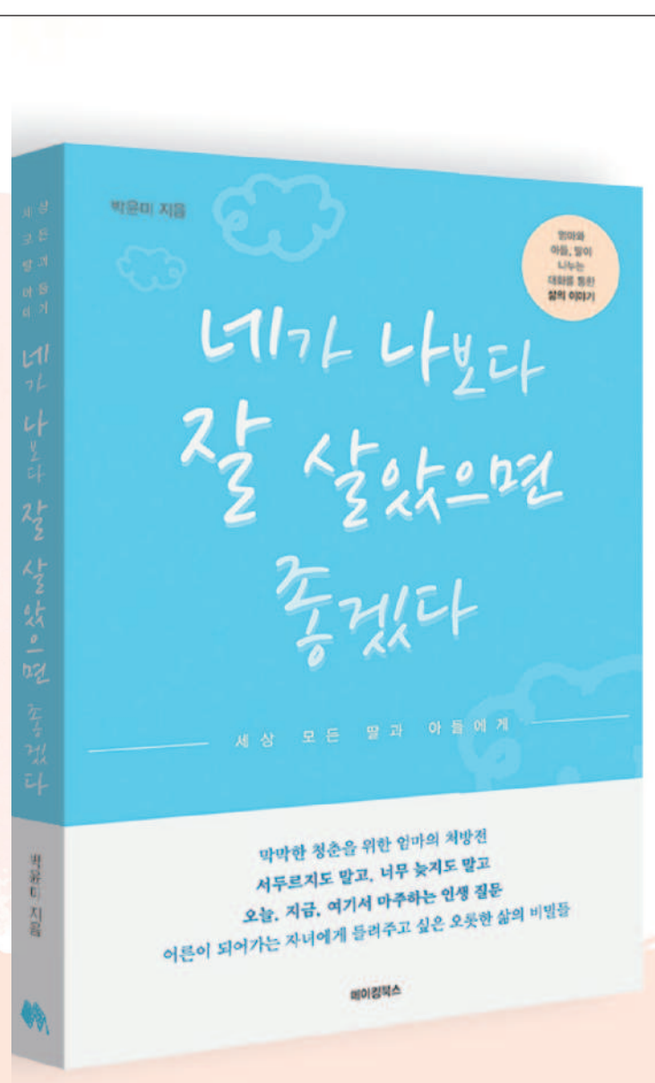
〈잇다it茶 대표〉

화제의 신간!!!

천만 불자(佛子)들의 필독서!!!

박윤미 작가의

네 가 나 보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대한 무수한 의문, 살아야 할 이유,
모든 해답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 존재합니다.

불자로서, 어머니로서,
청춘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부모님께는 자녀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줄 힘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부처님의 그윽한 자비를 누리시길 빕니다.

이 책 한권으로,
부처님 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박윤미 지음 | 220쪽 | 14,800원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굿바이 분노

▶ 한줄 요약
중생이 부처임을 깨달아야 하화중생이 완성된다.

중생이 웃으면 부처도 웃는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시고
선량한 중생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손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6:125-6:126]

부처님께서는 분명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미 완전한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존재가 중생으로만 보인다면, 이는 그들을 중생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에 눈먼 이런 오류를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중생은 중생의 고귀함을 알아보지 못하기에 거룩한 부처님들께 화내고, 음욕을 일으키며, 해악을 끼치고, 원망을 가득 품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로 인한 불선업의 대가로 자신과 상대를 원결로 묶어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는 대연민의 마음으로 연극의 방편까지 활용하십니다.

〈묘법연화경〉의 구원실성(久遠實成) 사상은 흥미로운 사실을 밝히는데, 인류 역사상 실존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셨던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생이 이미 온전한 부처님이라는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부처님께서 중생의 역할을 맡아 팔상성도(八相成道)의 이야기로 부처를 이루는 연극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생은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 중생 모두가 오래전 이미 성불하셨던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불하는 길의 표준 모델(model)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공간적 세계관에서는 삼천대천세계가 무한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삼천대천세계마다 한 분의 부처님이 존재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한한 부처님이 계실 수 있는 이유는 무한한 중생이 이미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모든 중생은 삼천대천세계를 품고 있는 무한한 법계이며, 그 법계를 책임지고 있는 온전한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중생을 부처님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진실한 모습을 보시는 부처님의 눈에 중생은 이미 부처님이라는 증거이고, 이 진실을 모르는 중생을 위해 부처님께서 친히 중생의 몸을 빌려 입고 눈앞에 오셨으니, 이 수고로움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생이 부처님이라는 진실을 믿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를 내딛어야만 중생의 본 모습을 목격하고, 일체중생 모두를 성불로 이끄는 하화중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지니고 있다면 부처님께서 간절히 전달하고 싶으신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저자 : 원빈 스님 〈이층버스 펴냄〉

은혜를 갚는 일석삼조의 길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회향할 세 가지 복전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모두 보은(報恩)에 가깝습니다.

세 가지 복전의 첫째는 삼보에 대한 회향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비롯한 삼보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삼보는 중생이었던 우리를 불자로, 보살로 변화시켰습니다. 번뇌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일대사 인연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 시작의 의지처가 되어 과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둘째는 부모님에 대한 회향입니다. 부모님 역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양육과 교육 그리고 베풀어주신 사랑을 차치하고서라도 위대한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인간 삶의 희유한 기회를 선물 받은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셋째는 중생에 대한 회향입니다. 중생은 보살이 일대사인연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중생 없이는 최상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노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생은 최상의 복전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을 주시는 부처님께
보답하는 가장 좋은 길은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6:119]

부처님과 부모, 중생의 은혜를 한꺼번에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생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돕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무한한 행복을 주시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중생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중생은 전생의 어머니이기에 중생을 돕는 것은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중생만 도우면 우리는 부처님과 부모의 은혜까지 모두 갚을 수 있습니다.

중생을 위해 여러 번 목숨을 버리시고
고통 속에 들어가신 부처님께 보답하는 길은
중생이 우리를 해치더라도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네.
우리보다 훨씬 위에 계신 부처님께서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중생을 위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오만하게 행동하며
중생에게 봉사하지 않는가. [6:120-6:121]

세상을 모두 용서함으로써 열반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부처님께서 완성하신 공덕을 나도 성취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최상의 행복이라는 열매를 얻고 싶다면 우리는 부처님께서 실천하셨던 수행의 씨앗들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처님도 성불하기 전에는 중생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번뇌의 노예였으나, 보리심을 일으켜서 번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그 수행의 목적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전신은 보리심으로 오직 일체중생을 완전히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처님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기뻐하면 기뻐하시고
중생이 괴로워하면 괴로워하시니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중생을 괴롭히는 것은 부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네. [6:122]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일대사인연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공경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방법이라고 여기는 것인데, 이는 중생의 관점입니다. 부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신심 깊은 불자로서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싶나요? 웃으시는 얼굴을 보고 싶나요? 그렇다면 중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몸이 불에 타고 있다면
어떤 욕망으로도 마음을 즐겁게 못하나니
우리가 중생을 해치면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릴 길이 없다네.
제가 지금까지 중생에게 끼친 해악은
모든 부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모든 곳 계시다는 부처님
실제 생활에선 체감 못해
일대사 이룰 근본이 중생

오늘 제가 이 모든 악행을 참회하오니
부처님이시여, 저를 용서해주소서.
[6:123-6:124]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로 갚아야 합니다. 이 상식이 통해야 분노를 다스리고 보리심 수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올바름이 있어야만 더 큰 행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아직 중생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서 종종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은혜를 갚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은혜를 갚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중생이 괴로우면 부처님께서도 괴롭습니다. 만약 중생이 누군가에게 해악을 입거나, 분노의 불길로 고통스러워한다면 부처님께서도 역시 괴롭습니다. 아무리 원한이 깊은 원수가 있어 그 감정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도 중생 뒤에서 그를 보호하는 부처님의 얼굴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 원수가 싫더라도 은혜를 갚기 위해 원수를 용서해주세요. 나아가 그에게 선물하고, 도와주고, 기쁘게 해보세요.

만약 부처님의 은혜를 갚겠다는 사람이 중생을 괴롭힌다면, 이는 부처님의 온몸을 불태우고는 기뻐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한한 윤회를 반복하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의 마음을 괴롭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진실을 알게 된 지금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삼보와 부모 그리고 중생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한 일석삼조의 방법은 바로 중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웃으면 부모와 부처님이 함께 웃습니다. 이것이 보살 수행의 기준입니다.

중생의 몸을 빌려 입은 부처님

한국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은 〈천수경〉입니다. 이 경전의 마지막에는 '온 우주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간절한 귀의의 내용인 이 문장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든 부처님이 계실 수 있지?'

이 우주에 항상 부처님이 계신다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눈앞에도 부처님이 계셔야 합니다. 버스 안에도, 영화관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방 안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지금부터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모든 중생에게 봉사하리니
그들이 나를 쓰러뜨리거나
짓밟더라도 보복하지 않고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리라.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대행 스님

공양을 올려도 한마음으로 한 공덕이 되게끔 하십시오

마음공부에 지침이 되도록 한 말씀…

질문 큰스님 법문을 들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일렁거립니다.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 데 있어 지침이 될 수 있게 한 말씀 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가 전력을 끌어 쓸 때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쓰듯이,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쓰고 큰 것은 큰 것대로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쓰듯이, 우리는 자유자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모자라고 항상 어렵고 항상 괴롭고…. 내가 생각할 때는 괴로운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우리가 몸뚱이를 가지고 사는데 말입니다, 콩씨로 예를 들자면 콩씨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콩나무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콩나무로 화(化)했다가 콩이 열려서 콩씨가 돼 가지곤 연방 또 콩나무가 되고 또 나오고 또 되고 또 나오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에라! 이거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지속적이고 불생불멸인 데요.

우리가 살다가 죽어도 그 생명의 근본만은 되남습니다. 불씨만은 되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이 남에게 작대기로 자기를 때리게 해 놓고 "당신은 나를 때리지 않았소!" 한 뜻과 같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한마디 더 한다면, 삼천대천세계를 막론하고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불씨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불덩어리가 다 타 버린다 해도 타는 사이가 없고, 다 안 탔다고 해도 안 탄 사이가 없어요. 어떠한 물질적인 불씨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력이 오고 가는 걸 보지 못하듯이 마음의 광력이나 자력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광력과 자력과 통신력이 모두 주어져서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은 항상 되남아서 영원토록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가 돌아가는 자체를 볼 때에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떡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떡이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 속에서 수만 개가, 즉 말하자면 원자에서 입자가 수만 개로 번져서 나가도 나간 사이가 없고, 수만 개를 들여놔도 들여놓은 사이가 없고, 두드러지는 사이가 없고, 줄어드는 사이가 없이 그렇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되주고 되남는다는 얘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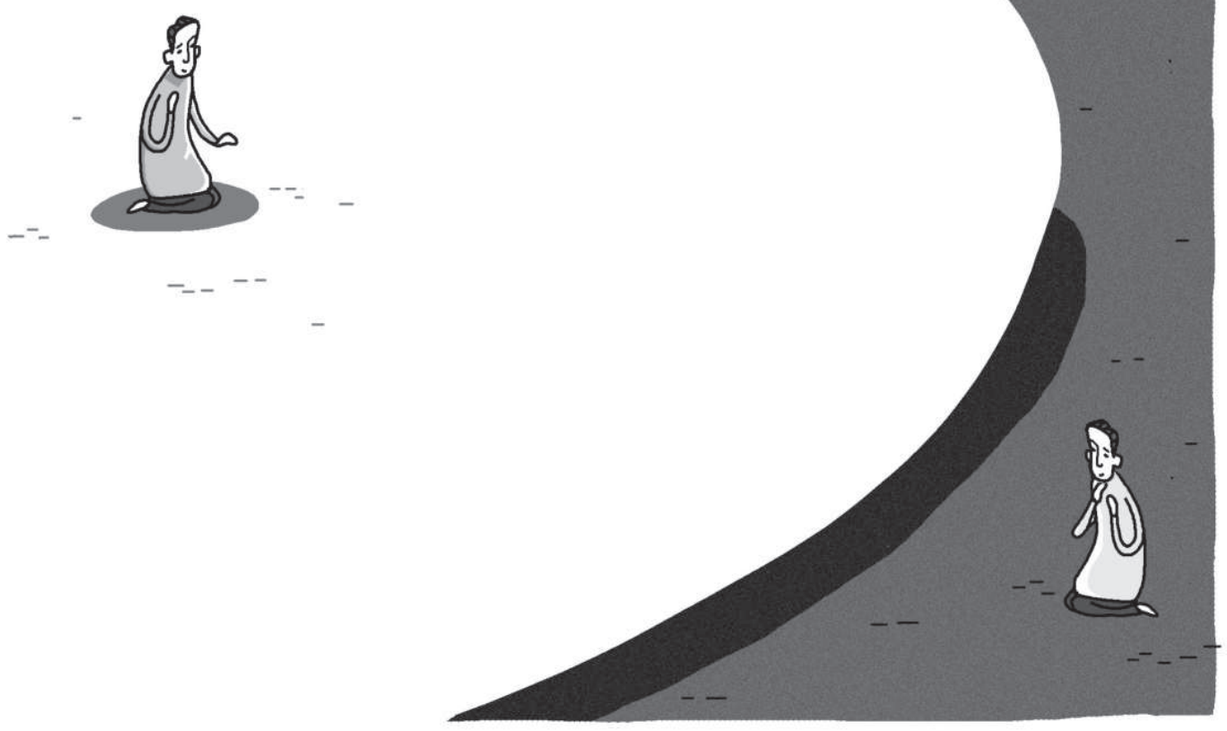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죽는다 산다' 이런 말을 하는데 따지고 본다면 이건 물질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지, 영원한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자기는 죽은 것도 없고 산 것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살아 있을 때 열반이라는 것도 있는 거지 죽은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오고 감이 없이, 발 없는 발로 길 없는 길을 오고 감이 없이 가고 올 수 있어야만이 한 발로 땅을 디딜 수가 있고 한 기둥을 세워서 하늘을 받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예전에 한암 스님이 상원사 적멸보궁에 올라가는 중간에다가 나무 작대기 하나를 꽂아 놓았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여러분한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꽂아 놓은 거지 "내가 영원히 살았다." 하고 표시 내느라고 꽂아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 다니면서도 눈을 뜨지 못하고 귀가 트이지 못해서 어쩌면 저 작대기 하나 세워 놓은 거를 저렇게 알아보지 못할까? 가지, 잎새, 뿌리내린 나무 한 그루만, 그 스님이 그렇게 심어 놨다는 것만 알았지, 도대체 스님이 그 가운데에 말씀하신 거를 영 모르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적멸보궁이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첫째, 내가 죽어서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죠. 다음에, 함이 없이 할 줄 알아야 하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줄 알아야 모든 것을 타파해서, 즉 말하자면 저 바닷물이 젖지 않는 도리를 알아야 적멸(寂滅)이다 이겁니다. 적멸! 사람의 몸이 죽어서는 절대 적멸이 될 수 없고 열반이라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내가 어질고 착하고 부드럽게, 항상 남한테 이익하게 하면서 잘못된 것은 내 탓으로 돌리라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 자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었더라면 부딪침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잘못됐다 잘됐다 할 것도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내가 태어난 탓이지 누구의 탓을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두 그렇게 사셔야죠. 짧은 것도 옳다, 긴 것도 옳다, 또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닌데요." 하는 것도 옳다. 그러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닌 게 옳다면 그냥 아주 없는데요." 이러더라도 그것도 옳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음공부 하는 데에 지침이 될 수 있고, 내 그 마음에서 모든 게 지혜롭게 타파될 수 있고, 물리가 터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이 뛰어나서 넓게 볼 수 있다면 넓게 생각할 수 있고, 넓게 생각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걸림이 없습니다.

과보라는 게 뭡니까? 인과응보라는 게 뭡니까?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이 모두가 뭡니까? 내가 죄가 없다면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듯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니까 영원히 걸림이 없이, 끝 간 데 없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이 소립니다.

탐진치 삼독심 제거하려면

질문 우리가 마음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탐진치의 삼독심을 제거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정진할 수 있을는지요.

답변 그거 걱정 없어요. 삼세, 삼심, 삼독 이런 것이 과거, 미래로 인해서 현재,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죽는 순간과 나올 수 있는 순간의 교차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미래가 오늘이죠.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되면 바로 삼세가 되고 삼심이 되니까 삼심이 그 무명을 벗지 못하고 인과를 벗지 못하면 바로 삼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독은 바로 현실의 일심 속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삼독을 어디서 빼내느냐. 그 모두, 지금 내가 작업하라는 대로 그렇게 관하시고 모든 걸 용광로에 넣듯이 거기다 놓으시면 바로 삼독이 무너지는 겁니다. 삼독이 무너지면 그대로 부처요, 그대로 법신이요, 그대로 화신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를 하나 건진다, 무명을 벗겨 준다 하더라도 그냥 소의 마음을 나와 둘이 아니게 딱 한데 합치면 두드러지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형체가 없는 거니까 두드러지지 않고 그냥 나로 돼 버리는 거죠. 나의 그 속을 거쳐서 바로 탄생이 된다 하면 꺼내도 줄지도 않고 넣어도 두드러지지도 않는 격이죠, 체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바로 나고 드는 것이 없죠. 나고 드는 게 없이 내 마음이 항상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합류화돼 가지고 돌아가는 게 사무 사유(四無四有)를 한데

☞ 22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우리가 살다 죽어도 그 생명의 근본만은 되남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합쳐서 중용을 한다는 격이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서 소의 무명을 벗겨 줘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금방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껍데기가 없어지는 거죠. 무명이 벗겨지고, 그 영혼은 내가 돼 가지고 바로 환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즉시에 무명이 벗겨지는 거죠.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도살장에 가는 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에 그냥 그렇게 해 줘요. 그러면 소의 머리를 방망이로 쳐도 아픈 걸 느끼지 않아요. 그러고 무명을 벗어요. 돼지든지 닭이든지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안을 치느냐, 바깥을 치느냐에 달려 있죠. 소도 바깥으로, 달구지를 치면 절대로 안 갑니다. 소가 가질 않죠. 그러니까 소를 쳐야 달구지를 끌고 가죠.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안의 소를 쳐야 바로 소가 작용을 하죠. 작용을 하니까 제도가 되죠. 작용을 하니까 일체가 다 제도가 된다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그대로 통신이 되면 어느 한 부분에만 통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을 치면 누진으로 통신이 돼 가지고 사대로 통신이 되는데, 그게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안을 치면 바로 사대, 즉 말하자면 세계로 친다면 세계가 다 통신이 되는 거나 똑같죠. 이 몸뚱이 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도 통신이 되니까요.

그렇게 통신이 되면 지금 이것이 어떻고 어떻고 어떤 건가를 전부 다 알게 돼요. 통신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 통신이 돼서 다 알고 자꾸자꾸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다 보면 둘이 아니게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돼서 이것이 '위로는 일체가 둘이 아닌 줄 알고, 아래로는 둘이 아닌 도리로 자꾸 제도해서 자꾸 안을 치면 그 소가 달구지를 끌고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제도가 된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니라. 위로는 부처를 모시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들을 맺으세요. 악한 인연을 맺지 말고 좋은 인연과 선덕을 쌓아서 바로 선의 씨로서 이 세상을 두루 한다면 내가 고달플 때 모두 같이해 주고 모두 같이 들어 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공양의 의미

질문 절에서는 부처님이나 스님들께 무엇을 올리는 것도 공양 올린다 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공양을 한다고 하는데 그 뜻이 있을까요?

답변 여러분이 식사를 한 그릇 먹을 때에 혼자 먹습니까?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러 생명들이 같이 먹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몸속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공식(共食)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밥 한 그릇이 또 뭡니까? 농사지은 사람, 밥 지은 사람, 뭐뭐, 전부 거기 손길이 갔으니 모두 한데 합치면 전부 공식이에요. 그러니 공식했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공양(供養)입니다, 공양! 그래서 "공양을 올려라." 이렵니다.

어느 한 부처님에게 올리는 게 아니고 '우주 삼라만상 전체에 한 그릇으로 공양을 올리고도 그 한 그릇은 되남더라' 하는 겁니다. 되남아서 또 올리고, 먹어도 또 남고, 또 먹어도 또 남고 이렇게 되풀이되는 끊어지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혼자 먹어도 공양입니다. 그래서 공양! "공양하셨어요?" 이러죠, 절에서? "밥 먹었소?" 이러지 않고.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어도 그것을 해서 올리는 자는 누구며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해서 올리는 자도 자기요, 받는 자도 자기입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볼 때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먹는 것입니다. 몸속에도 수십억 마리의 생명들이 들어 있음으로써 네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양 한 그릇을 내가 먹는다 하더라도 생각을 잘하면 공양이 되고 생각을 잘못하면 그냥 밥 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공식(共食)한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양을 올리면 공덕을 입는다 이런 소립니다. 그러나 공양이 아니고 개별적인 밥이라면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덕이라는 것이 내 몸의 조직체, 즉 모든 생명들이 한 그릇을 놓고 다 같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먹으니까 다 같이 마음을 내서 모두 서로서로 도와 가면서 서로서로 작용을 하고 작용을 해 주고 사니까 공동체요, 바로 공덕이 되는 거죠. 공덕이 된다는 뜻도 그렇지만 공양을 올린다 하는 것도 그렇고 공향을 피운다 하는 것도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공양을 올리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전부, 만물만생이 전체가 다 한 그릇을 놓고 내부에나 외부에나 전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덕이 될 수밖에요. 나를 떠나서 상대로 믿는다면, 상대를 믿는다면 공덕이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공양이 될 수가 없구요. 그리고 마음의 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향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깥으로 믿고 바깥으로 끄달린다면 아무리 공양을 많이 올리고 시주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공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이 되게끔 공양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공덕이 되게끔 행을 하고 마음을 내라 이거죠.

> 우리가 좀 더 마음이 뛰어나서
> 넓게 볼 수 있다면 넓게 생각할 수 있고
> 넓게 생각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조직체로서 운영을 하는 거지 조직체가 아니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도 조직체가 돼 있기 때문에 회사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굳이 조직체라는 이름이 없이도 말입니다.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상무가 있고, 총무가 있고, 직원이 있고 모두 이렇게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질서 정연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고. 그렇듯이 우리가 공양 한 그릇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고 내가 먹는다 하더라도 공양입니다. '이거는 내가 먹으니까,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단 한 숟가락을 먹더라도 공양을 올리시라 이겁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것도 공양이요, 둘이 아니게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전체가 바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든, 한 그릇을 바치든 공양은 공양입니다. 더불어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공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속의 생명들과 공식을 한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도 없이 앞에 있으니까 그냥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산해진미를 올린다고 해도 이만큼을 올린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아무런 공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한마음으로 한 공덕이 되게 하십시오.

자식 문제는 잘 놔지지 않아요

질문 안 좋은 습관이 나올 때마다 돌려놓으면서 가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되놓고 되놓고 하는데도 자식 문제는 제 집착이 너무 강해서인지 잘 놔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공부를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데, 제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변 그건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되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자꾸 따지는 버릇을 갖는다면 습입니다, 그게. 자기한테만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따지죠, 일일이. 그게 왜냐하면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속에 자기가 다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몸속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거기서 솔솔, 그저 이때 한 거는 이때 나오고 저때 한 거는 저때 나오고, 그냥 입력된 대로 순서대로 착착 나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착착 나오는데 그 나오는 의식들이 수가 없습니다.

그 의식들이 입력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자꾸 거기서 나오는 대로 나오는 그것만 알지, 그것이 잘되고 잘못되는 거를 모르는 중생들입니다, 이게 업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대로, 그놈도 거기서 나온 거, 그놈도 거기서 나온 거, 그놈도 거기서 나온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어느 수좌가 동짓날 팥죽을 큰 솥에다 쑤는데 팥죽이 부글부글 끓어서 팥죽 방울이 수없이 나오거든요. 수없이 나오니까 퍼뜩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우리 몸뚱이 속에 있는 팥죽 방울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방울대로 따로 따로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아이구, 한 팥죽 솥에서 나오는구나!' 하고요. 이제 아시겠죠? 한 팥죽 솥에서 방울이 나오는 거지 팥죽 솥이 따로 있어서 방울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문수! 요것도…." 자기 법이란 얘기죠. 법신! "요것도 법신! 요것도 법신!" 하고는 주걱으로 때렸단 말입니다. "이것도 문수! 저것도 문수!" 하고 그저 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스스로 익는다면 벌써 팥죽은 다 익었으니까, 열기가 더 오르지도 않고 더 내리지도 않고 아주 평상시처럼 따뜻하게만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팥죽 방울이 올라오지 않죠. 모두가 하나가 돼 버렸으니까, 그냥 모두가 팥죽이 돼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듯이 모든 것을, 거기서 어떠한 뿔따구가 나오든지, 또 자기에게 누가 되게끔 생각이 나오든지, 또 집안 식구들한테 짜증이 나든지, 또 자식이 잘못해서 속이 상하든지, 모든 것을 거기다가 그냥…,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자식의 일이든지 뭐든지 다 거기다가 맡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나오는 걸 거기다가 맡겨 놓을 때, 동시에 '흥,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돌아서 잘 나오게도 할 수 있잖아!' 하는 생각이 아주 필연적으로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일도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되게 할 수 있는 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잖아?' 하고 돌려놓는 겁니다.

속에서 이렇게 뿔따구가 날 때 '아니, 불이 일어나게끔 나올 때 불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도 바로 거기 아닌가?' 이럴 때는 아주 선선하게 이 마음이 곧바로 화해 가지고는 아주 좋게 나옵니다. 즐겁게 나옵니다. 웃음도 깔깔대고 웃다가 '아이고, 이거 안됐잖어?' 하는 생각을 하면 웃음이 뚝 멎죠? 허허허…. 그렇게만 하신다면 모든 게 아주 더함도 덜함도 없는 잘 익은 팥죽이 돼서 맛있게 맛을 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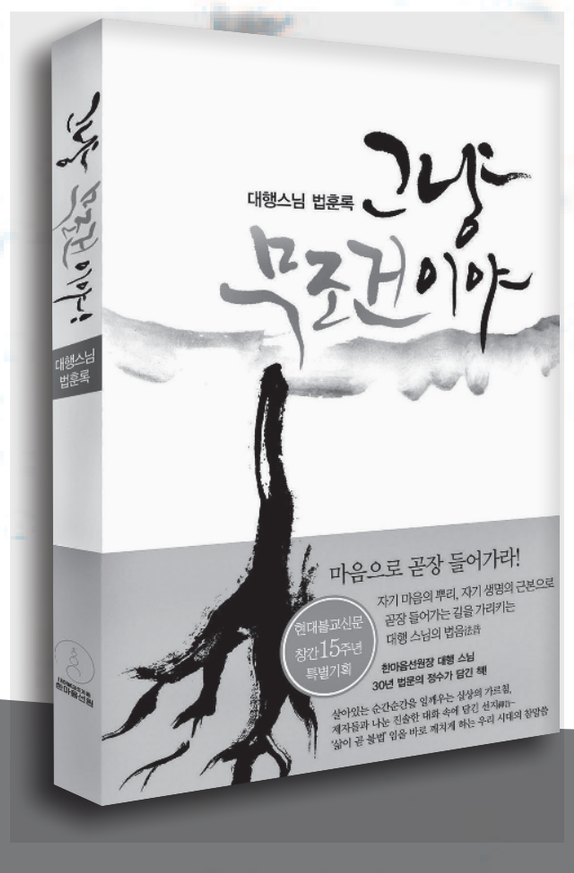
엄마가 암 말기라는데…

질문 저의 엄마가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아주 말기래요. 그래도 저는 주인공에게 맡기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주위에서 자꾸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먹고 싶은 거 잘 챙겨드리라 그러니까 매우 화가 나요. 이럴 땐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지요.

답변 이거 보세요. '한마음 주인공' 하면 모든 이 공장 공장마다, 간장 공장에서나 위 공장, 심장 공장…, 이게 간장이 나빠지면 심장도 나빠지고 위도 나빠지고 대장까지도 이게 좋지 않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가, 한마음 주인공만이 낫게 할 수 있고 네 몸을 네가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가야지 않겠느냐고 거기다 놨을 때, 모든 일체의 그 파워가 일어나서 굳어 들어가던 그 자체 세포가 하나하나 살아지거든요. 이렇게 죽게 만드는 게 있고 세포를 살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죽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죽게 만드는 것이 같이 포함해서 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작용을 해 주는 것도 내 몸 안의 중생들이 다, 회사원들이 작업을 해 줘야 회장이 살듯이, 이 사람이 전부 종합해서 보면 내가 회장이라면 그 모습들은 다 직원이란 얘깁니다. 직원들이 움죽거려 줘야 회장이 살죠? 그와 같으니까 그 직원들한테 "너도 내 식구다." 하고 다 맡겨라 이 소립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암이다 뭐, 위암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름일 뿐이에요. 마음이다 뭐, 주인공이다 하는 것도 이름이니까 진짜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mahamall.co.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 현불 논단 |

조선왕조의궤, 오대산 환지본처를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1913년 일제 약탈로 시작된
조선왕조실록·의궤 수난사
2011년 월정사와 환수위의
반환 요구 끝에 고국 돌아와

보존 시설과 적정성 미비로
국립고궁박물관서 보관 결정
2019년 세운 의궤박물관에
환지본처하여 관리해 가야

지난 6월 29일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해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가 제자리인 오대산에 봉안되어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도 9월 10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에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문화재제자리 찾기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는 환지본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은 1913년 데라우치 조선총독에 의해서 일본 동경대학교 도서관으로 약탈당하면서 수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외부로 대출된 74책을 제외하고 모두 불타버렸다. 1924년 27책이 경성제국대학교에 반환되고, 나머지 47책이 2006년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돌아왔다. 1922년 일본 궁내청으로 무단 반출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의궤도 2011년 월정사와 환수위원회가 강력하게 일본 정부에게 반환 청구를 해서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성과를 이루었다.

문제는 그 동안 일본이 약탈해 간 문화재의 환수에 대하여 수수방관해 왔던 문화재청과 서울대학교가 오대산 사고(史庫)가 문화재를 보존과 연구할 시설과 장소의 적정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6년 관리의 주체를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지정하였다. 307년 동안 오대산 사고를 지키고 보존해 왔던 월정사와 강원도민은 닭을 쫓던 개 신세가 되고 말았다. 급기야 2021년 6월 16일 강원도 도민과 월정사가 중심이 되어 '범강원도민조선왕조실록·의궤 제자리찾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안타까운 일이다. 조선시대 4대사고가 생긴 이후 사고(史庫)를 지키고 수호한 주체는 불교교단의 수호사찰(월정사·전등사·안국사·각화사·보현사)의 주지와 승군이다.

2006년 오대산에서 열린 환수 고유제에서 당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관리 능력과 시설이 되면 오대산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9년 강원도 도비와 국비 131억을 들여 조선왕조실록·의궤박물관을 최신식 시설을 갖추어 지어놓고도 텅 빈 껍데기 공간으로 국세만 낭비하고 있다. "문화재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우리 정부가 1972년 이후 프랑스정부를 대상으로 〈직지〉와 〈조선왕조의궤〉를 돌려달라고 할 때 외친 구호이다. 문화재는 본래 자리에 있어야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지난 8월 12일 '조선왕조의궤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일부러 강원도 오대산에 위치한 오대산사고와 월정사 입구에 위치한 조선왕조실록·의궤박물관에 다녀왔다. 의궤는 볼 수 없고, 전시회 도록도 만들지 않은 실망스러운 행사였다.

임진왜란으로 4대사고 중 춘추관·충주·성주사고가 모두 불타고 전주사고만 손홍록이 정읍 내장산의 암자, 용굴암과 은봉암에 피신을 시켜 소실을 막았다. 조정에서는 전주사고를 승병장 서산대사가 주석한 묘향산 보현사 청허방장이 있는 금강굴에 봉안하여 전화의 위기를 모면하였다. 전란 후 선조 39년(1606)에 전주사고본을 모본으로 3부를 더 제작하여 춘추관·적상산·정족산·태백산·오대산에 봉안하였다.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다"는 조상의 지혜에 따라 실록과 의궤를 보관하는 사고(史庫)는 전국 삼재(三災) 불입처에 건립되었다. 정부는 열악한 강원도의 문화 예술의 육성지원에 앞장서는 문화정책으로 지방문화 분권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마땅히 조선왕조실록·의궤를 오대산으로 환지본처해야 한다.

社 說

세종신도시 광제사에 거는 기대

세종신도시 광제사의 대웅전과 한국불교체험관이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종 광제사 건립불사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세종 광제사 불사는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이 종단의 핵심종책과제로 신도시 포교거점 사업을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석불사 주지 경륜 스님이 원력을 보탰고 여러 스님들이 건립불사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면서 탄력을 받았다. 2014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18년 건축허가 승인을 비롯한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 2020년 첫 삽을 떴다.

세종 광제사는 향후 신도시 포교의 구심점이 될 핵심도량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불교는 이웃종교에 비해 신도시 포교분야에서 상당한 약점을 드러내왔다. 기본적으로 사찰의 대부분이 산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종교부지를 확보해 보다 본격적으로 포교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종단불사로 추진 중인 세종 광제사는 신도시라는 지리적 이점뿐 아니라, 함께 건립 중인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통해 전통문화 확산을 이끌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상량식에서 이 점을 특히 강조했다.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세종신도시에 전통문화를 향유할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세종 광제사 건립불사가 원만회향해 한국불교 중흥을 견인할 거점도량으로 성장하길 발원해 본다.

영화·미디어 포교에 지속적 관심을

한국 첫 국제불교영화제인 세계일화국제불교제가 8월 30일 폐막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15개국 62편의 영화가 전편 무료로 상영됐다.

코로나19 기간에도 5일간 누적관객 1800여 명에 영화 예매율은 80%에 달했다. 특히 '파필리오의 부다'를 포함한 11개 작품이 매진되는 등 첫 개최임에도 큰 호응을 얻었다.

영화관 수용 50%만 입장하는 상황에서의 놀라울 만한 성과다. 코로나19로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불교영화를 접하고 호평을 쏟아냈다.

그동안 한국불교계는 포교 방안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산사음악회 외에는 불교계가 가진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포교가 드물었고,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만 머물러 왔다.

불교 영화 또한 그 범주에 머물렀다. 유명 영화들 사이에서 일종의 종교영화 맛보기 수준이었다. 이번 국제불교영화제의 성공적 운영은 불교영화가 새로운 문화포교의 수단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입증했다.

남은 과제는 많다. 2회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양질의 영화를 섭외하고 출품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활용해 불교영화 외에도 일반 사회의 미디어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불교계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전법사들이 수난 속에 한 명 한 명씩 찾아다니며 포교하는 시대는 저물었다. 잘 만들어진 영화와 드라마가 불교에 대한 호감을 높이고, 이들을 사찰로 찾아오게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불교 중흥의 장이 될 영화와 드라마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불교계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노 거사의 고민

작년 추석 무렵 한 노부부가 법당을 찾아왔다. 거사님은 80이 넘었지만 정정하신 데 반해 아내분은 걸음도 부축해야지 걸을 수 있을 만큼 보행이 힘들었고 보고 듣는 것도 어려워 보였으며 말하는 것까지 어눌하였다.

약 6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고 깨어난 뒤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기엔 어려운 상태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공덕으로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이렇게라도 살아주어서 고맙지요."라며 거사는 얼굴에 굵은 주름을 드러내며 웃었다.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난 후 추석명절이 가까워 오는 근래 거사님은 또 법당을 찾았다. 이번엔 혼자였다. 아내분의 안부를 물으니 "갈수록 같이 다니기는 힘들지요. 그냥 집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라고 하며 엷은 미소를 짓는다.

"보살님에게 참 친절하고 자상한 남편이신 것 같아요." 라고 미소에 응답하니 거사님은 손사래를 친다. "아휴, 아닙니다. 고생만 많이 시켜서 그게 제일 미안합니다. 제사가 많았거든요."

거사는 아련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제가



그림·최주현

장손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3대 독자셨어요. 아들이 귀한 집이었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시집와서 아들 셋을 낳으셔서 할머니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셨지요. 게다가 제가 특히 장손이다보니 유독 사랑을 더 받고 자랐습니다." 거사님은 어릴 적의 추억을 얘기하며 어린 소년의 표정이 되어 추억의 향연을 나누셨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에 대해 감사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난 뒤로 제사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참 장손된 도리, 자식된 도리를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업이 많은 건지… 제 대에서 제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사님의 표정에 수심이 드리워졌다.

거사님은 아들 딸 남매를 두고 있으며 아들도 결혼하여 손주들도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몇 년 전 며느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담담히 풀어놓았다. 거사님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상님들의 위패를 절에 모시고 자신과 아내의 위패까지 미리 절에 안치하여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스님,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해주고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거사님의 단호한 눈빛과 표정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묵묵히 거사님의 빈 잔에 뜨거운 차를 채워 드렸다. 뜨거운 차가 넘치지 않도록, 잘 드실 수 있도록 마음을 기울이며 차를 따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자연에서 찾은 건강한 추석선물

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백두대간에서 재배한 돌배 세우실담은 도라지 스틱 液



[제품용량] 10ml x 30포(300ml) / 액상차
[원재료명 및 함량]
도라지추출물(고형분8%이상, 도라지뿌리 11.11%)56.9%,
배추출물(고형분4%이상 / 돌배나무열매11.11%)12%,
배농축액(고형분60%이상)8%

인터넷에서 도라지 추출물 성분인
NAVER 플라티코딘D효능 ▼ 을 검색하세요.

백두대간 재배 약도라지, 돌배 제품은 이런 점이 다릅니다.

- 무농약, 유기농 재배, HACCP 인증
- 백두대간 800m에서 이식 재배한 8년근 약도라지 사용
- 다양한 영양성분과 유기산이 풍부한 유기농 돌배 사용.
- 평창 동계올림픽 면세점에서도 판매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도라지에 함유된 "플라티코딘 D"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

※ 우체국 택배 발송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제17303135호
GAP (우수관리인증) 농림축산식품부 제1010417호

자연에서 찾은 건강 진액골드 노루궁뎅이버섯 津液



[제품용량] 80ml × 30개입 / 1일 1~2회 /1회 (80ml)
[원재료명 및 함량]
노루궁뎅이버섯추출액88.9%(노루궁뎅이버섯 고형분 2%, 국산), 배농축액10%(국산), 오미자청(국산), 생강농축액(국산)

인터넷에서 NAVER 노루궁뎅이버섯효능 ▼ 을 검색하세요.

노루궁뎅이버섯은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합니다.

- 실버식품으로도 불리우는 노루궁뎅이버섯은 인지개선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헤리세논, 에리나신 함유.
- 위산분비 조절, 염증개선 및 위장운동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올레아놀릭산" 함유.
-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 제거 역할.
- 베타글루칸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인체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

※ 우체국 택배 발송

해양심층수 100% 해양 高 미네랄 MQ 눈소금

瞬間空中結晶製鹽技術
동해바다 수심 605m
청정 해양심층수를 길어 올려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로
찰라의 순간에 수분을 증발
소금을 공중에서 눈처럼 내려
쌓이게 하는 첨단기술로 만든
깨끗한 미네랄 엠큐눈소금



深層水의 미네랄을 가득담은 기적의 소금 (순간공중결정제염)



엠큐 눈소금의 특징

- 해양심층수 100%로 만들어진 해양미네랄 100% 소금입니다.
- 청정 해양심층수를 마이크로필터로 걸러서 만들어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확인 소금입니다.
- 골다공증 예방,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칼슘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 신경전달의 핵심 미네랄인 마그네슘,칼륨,칼슘,나트륨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화와 영양흡수를 돕는 나트륨, 염소 성분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십가지 미네랄이 미네랄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건강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나트륨 성분의 체내 배출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나트륨 축적의 위험성이 없는 소금입니다.

※50 0ml 생수에 소금3g을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구분	일반정제염	엠큐눈소금 (100g 당)	차이점
화나트륨	99.52%	75.39%	24.13% 낮음
나트륨	38.99g	29.64g	9.35g 적음
그네슘	10mg	3,893mg	389배 많음
칼슘	30mg	988mg	32배 많음
칼륨	20mg	992mg	49배 많음
기타	표층수	해양심층수	

■ 자료 출처 명기
나트륨배출 촉진 : 출처 : KBS 생로병사의 비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출처 : 한국 분석과학연구소
소금성분 출처 : 한국기능식품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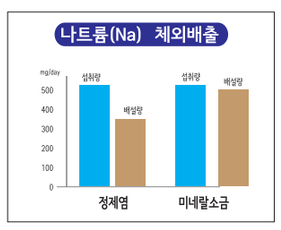
수상 경력

- 2019년 9월 대평남종현 발명문화상 수상
- 2019년 10월 GTI국제투자무역박람회 금상 수상
- 2020년 6월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수상
- 2021년 7월 2021년 대한민국을 이끈 혁신리더 50인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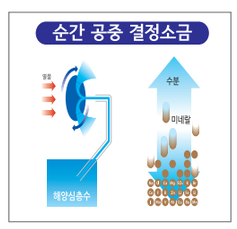
특허

- 10-1844017 : 해수에서 미네랄 분리추출
- 10-0885175 : 미네랄 워터와 미네랄 소금 제조기술
- 10-1681672 : 나무의 유용물질 함유 미네랄 소금제조기술
- 10-0548295 : 미네랄 해수소금제조장치 및 방법


미세플라스틱불검출 인증



나트륨배출 촉진확인



최첨단 특허제조기술



3g 스틱(60포)
건강용 제품 (3g 한 포 500ml 에 타 드세요)



엠큐눈소금 W 스틱 엠큐눈소금 W 굵은소금 1병
고운소금 1병으로 구성 건강고급제품



고운 소금 2병 굵은소금 1병으로 구성된 세트제품 요리등에 적합

※전 제품 롯데택배 무료배송 (도서, 산간, 오지 등 일부지역은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문의 : 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